중구지음



중구생활문화백서
중구지음 2권

‘돗’_생활문화 실전편

중구지음



중구생활문화백서
중구지음 2권

‘矢’_생활문화 실전편

지음(知音): 마음이 서로 통하는 친한 벗

'지음'은 마음이 서로 통하는 친한 벗, 즉 '친구'를 뜻하는 말입니다. 지음에서 한자 '知(알 지)'의 훈음을 풀어, 동네친구 활동 입문편인 1권을 '口(입 구)'로, 동네친구를 더 깊이 알고 화살처럼 꿰뚫는 실전편인 2권을 '矢(화살 시)'로 이름 붙였습니다.



七夕

2권 여는 글 8

4장. 2021년의 생활문화, 그리고 그 다음

기고 생활문화 이해에서 한 발 물러서기 (임재춘) 14

기고 '열린 기술'로서 생활문화 (유상진) 16

Keyword 동네친구들이 좋아한 것과 고민한 것 19

01. 동네친구 사업의 대상은 누구인가 28

02. 동네친구들의 주체성 28

03. Covid-19 29

04. 짜장면보다는 멘보샤를 먹어보는 용기 30

05. 2022년 동네친구 놀이터 32

부록

01. 정량적 결과 보고 36

02. 동네친구 타임라인 78

여는 글

知_화살 시(矢)
생활문화 깊이 보고 한 발짝 나아가기

지금까지 1권에서 중구문화재단이 주민들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한 2021 동네친구 사업을 돌아보았습니다.
한 해 동안 동네친구란 이름으로 수없이 모이고 흩어지길
반복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생활문화란 무엇이고, 과연 이것이 최선이며, 우리는 정말
친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그 누구도 예상하거나
방어할 수 없었던 코로나 상황에서 때로는 그 고민마저
사치이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은 자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
규정할 수 없던 다채로운 동네친구들의 모습이 곧
생활문화이자 주민들의 요구였으며,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혹은 소규모로 모인 올해 우리 모임에는
한계보다 어울림의 의지가 컸다고 말이죠. 취향과
취미를 매개로 동네를 주민들의 진정한 삶의 터전이자
놀이터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우리의 생활문화적 시도는
불완전했을지 모르나 의미 있었습니다.

중구지음 2권에서는 이미 생활문화를 접했거나
알고 있는 실무자와 담당자 혹은 기획자들을 염두에
두고 2021년 동네친구 사업의 유의미했던 지점들을

회고하며 앞으로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오랜 시간 생활문화를 지켜본 두 전문가의 관점을 통해 생활문화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보고, 한 해 동안 함께했던 동네친구들의 심층인터뷰에서 발췌한 내용을 기반으로 그들이 좋아한 것과 고민한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네친구 사업의 대상과 주민주체성의 정도와 같이 2021년 동네친구 사업의 쟁점이 되었던 이슈들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함께할 동네친구와 생활문화는 어떤 모습인지 제안하면서 이 책을 마치려고 합니다.

중구지음의 1권이 口(입 구)였다면, 2권은 矢(화살 시)입니다. 환대하는 마음으로 생활문화 입문자들을 동네친구로 초대하고, 날카롭게 우리의 시행착오들을 기록하며 해석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는 知(알 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문화가 생소한 사람들에게는 이 책이 생활문화를 조금이나마 알게 해주는 계기가 되길. 그리고 여전히 어려운 생활문화지만 우리는 내년에 조금 더 지혜로운 모습으로 주민들 앞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중구문화재단 생활문화팀

※ 제2장 '우리 동네 친구 이야기' 인터뷰를 진행한 생활문화팀 배제현의 인사로 문을 열었습니다.

☼ 知_화살 시(矢)





Ⅳ. 2021년의 생활문화, 그리고 그 다음

Ⅳ. 2021년의 생활문화, 그리고 그 다음

기고

생활문화 이해에서 한 발 물러서기

글 임재춘 커뮤니티 스튜디오 104

인터넷 검색창에 '생활문화'를 입력하면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생활문화 개념을 얻을 수 있다. 이 정의는 생활문화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활'과 '문화'가 각각 그렇듯, 이 4음절의 단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직접 경험할 때, 우리 삶의 한 방식이 될 때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문화가 더 많은 이들의 일상에 가까워지도록 현장에서 오래 활동한 임재춘 문화기획자 역시 생활문화는 실천의 영역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선생님, 생활문화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자주 물어오곤 하는데, 돌이켜보면 저는 매번 엉뚱한 대답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궁금한 것이죠?"라고, 저에게 온 질문을 다시 상대방에게 돌려보내곤 했거든요. 질문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지만, 함께 생각해 볼 '생활문화'라는 4음절의 단어를 좀 더 구체적인 문장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생활문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하는 질문들을 불러냈던 여러 상황과 갈등 등 각자의 경험을 견주어 구체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정은, 묻는 사람과 답하는 사람의 위계적 구분이 아닌, 저를 포함해 그 질문을 둘러싸고 앉은 각자가 생활문화의 주체로 존재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생활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명료하게 정리된 텍스트를 학습하는 게 아닌, '이해하려는 의지를 도모하는 문제' 즉 실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 내가 발 딛고 있는 장소나 무형의 자리, 그리고 그 안이나 바깥,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문화와 예술,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또는 의미적으로) 호명되지 못한 존재나 가치에 주목하며 그것을 드러나게 하고 만들어가야 하는 실천과 예술 행위가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것은 기존에 알고 있는 문화예술에 관한 것들과
다르지 않아보이는데요?"

동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모든 문화정책은 이러한 사회적 실천을 근거로 둔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가 변하고 사회적 가치, 사람들의 가치관, 삶에 대한 관점도 바뀌잖아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매우 명확하게 드러난 기후위기 상황 그리고 기술 중심의 압력에서, 문화예술이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에는 매우 실용적인 태도 -이를 테면 정치적 이용, 계몽적 태도, 가시적 성과 등-가 작용해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생활문화를 이해하는 일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해 보이지만 여전히 다양한 저항이 필요한 문화예술의 의미를 생활문화를 통해 다시 상기하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의 정책 영역으로서 생활문화의 포지션(의미적 위치)이 존재합니다. 모두에게 문화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시혜적 태도(문화의 민주주의)를 넘어, 예술과 비예술 또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구분을 허물고 누구나 스스로 문화적 경험을 창조·향유한다는 점에서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활문화를 접하고 혼란을 겪는 이유는 이러한 정책적 관점과, 삶의 실천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 현장이 아주 멀거나 만나는 방식이 서툴기 때문인 듯합니다. 생활문화가 무엇인지, 사전적 정의와 각자의 경험치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의미, 그리고 문화정책이나 각종 (지원)사업에서 표현되는 개념이 혼재돼 있어, 이러한 파편들을 견주는 것만으로는 생활문화를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존재하지도 않는 생활문화 개념 찾기에 에너지를 소진하기보다 그저 자신의 삶을 사는 것, 일반적인 성과의 잣대로는 판단할 수 없는 '쓸데없는 짓'이 더 절실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 감각하고 체득하는 물리적 더듬거림이 현장

실천가들에게 어울리는 탐색의 방식이자 태도가 아닐런지요. 그러한 문화적 시간과 사건을 통해 우리는 각자의 언어로 자신에 관한, 나를 둘러싼 삶과 예술, 문화를 말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정책에서 말하는 생활문화와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면 굳이 생활문화가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생활문화를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한 발 물러서자'고 제안합니다.

저는 요즘 제 작은 일상의 감각을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요청받은 질문, 자리를 채우느라 정신 없던 시간을 마감하고, 진부하기만 한 바쁜 것들과 거리를 두는 일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을 만드는 것이 저에게는 중요한 문화적 실천이자 제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절실함입니다. 어쩌면 이 두 달의 공백이 가장 생활 밀착적이면서 문화적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열 달 동안 여기저기 다니며 제가 하고 다니는 말은 두 달간 비축해둔 것을 긴가 민가 대보는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의 공백은 어떠한지요?

기고

'열린 기술'로서 생활문화

글 유상진 경기도청 문화종무과 자문관

생활문화의 의미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해석돼 왔다. 생활문화는 예술 활동과도 자주 견주어 이야기된다. 이 둘은 극도로 개인화된 사회에서 취향과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구문화재단의 동네친구 사업은 생활문화를 예술동호회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의 연대를 추구·시도했다. 유상진 연구자는 중구라는 지역과 주민의 다양성에 기반을 둔 이 활동이 주민의 일상과 밀착하며 좀 더 지속가능하리라는 점에서 무척 긍정적이라고 말한다.

"진화는 진보가 아니라 다양성의 확대다" 진화론의 대가 중 한 명인 스티브 제이 굴드(Stephen Jay Gould)의 주장이다.[4] 우리는 생활문화를 통해 지역문화생태계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 우리 지역문화는 진화하고 있다.[5] 주민들의 다양한 일상 문화활동은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깊고 넓게 확대시킨다.

4 <풀하우스>, 스티븐 제이 굴드 저·이명희 역, 사이언스북스, 2002.

5 스티븐 제이 굴드는 문화 영역에 '진화'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대신 '변화'가 올바른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는 지역문화를 생태계로 바라는 보는 현재 우리의 통상적 시각에서 굴드의 주장과 다르게 '진화'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IV. 2021년의 생활문화, 그리고 그 다음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 이전부터 지역현장에서는 생활문화, 생활예술, 생활문화예술 등 여러 유사한 용어들이 혼재돼 사용됐다. 이런 혼선과 불명확함은 늘 비판 받았고,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생활문화'로 공식적으로 정의하고 규정함으로써 '생활문화'로 단일, 통합해 사용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여전히 상존한다. 생활문화는 정치(精緻)한 개념적 구분과 명확성을 요구받는 개념이다. 과연 생활문화의 정치한 개념 정의가 가능할까? 필자는 회의적이다. 사실 이 문제는 상당히 풀기 어렵고 분석철학적 또는 본질주의적 접근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고 본다. 반면 예술에 정치(精緻)한 개념적 구분과 명확성을 요구한다면 가능할까? 합의가능한 예술의 명확한 개념과 정의, 그리고 영역설정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고 본다. 생활문화, 생활예술, 생활문화예술 등 각각의 정치한 개념적 구분과 영역 설정은 역설적으로 '본질적으로 경합하는 개념(Essentially Contested Concepts)'으로 자유, 평등, 공정 등과 같이 하나의 단일한 정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6]

6 "본질적으로 경합하는 개념(Essentially Contested Concepts)" 은 월터 갈리(Walter Bryce Gallie)가 1956년에 발표한 논문의 제목이자, 많은 철학적 탐구자들이 느끼는 특정한 문제 상황을 지칭하기 위해 그가 고안해 낸 용어이다. 간단히 말하면, 본질적으로 경합한다는 것은 추상적 개념의 차원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가 존재하지만, 그 개념의 적절한 적용례 또는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 것을 뜻한다.

[출처] "본질적으로 경합하는 개념(Essentially Contested Concepts)" https://blog.naver.com/ysgoodfriend/110132020775

이에 생활문화 정의와 개념 논쟁보다는 생활문화가 지향하는 목표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더 생산적이고 유효하다고 본다. 물론 이는 정책적 논의에 한정해야 한다. 생활문화는 도시정책, 문화복지 정책, 사회정책 등 다양한 영역의 담론에 걸쳐 있다. 개인의 소외와 배제, 사회적 관계 축소, 개인주의 및 경쟁 심화 등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적 병리 현상의 치료책으로 소환된 점도 있다. 현재 우리의 지역문화생태계를 예술적 관점과 이해, 즉 예술성과 미학적 가치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앞서 언급한 다양성의 확대라는 그 진화의 양상을 놓치게 된다.

그렇다면 예술적 논의로 생활문화를 이해해 보자. 원래 예술(Art)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테크네(technē)는 숙련된 능력 또는 활동으로서의 '기술'을 의미한 말이다. 오늘날 미적(美的) 의미에서의 예술이라는 뜻과 함께 '수공(手工)' 또는 '효용적 기술'의 의미를 포괄한다. 이에 '아르테(Arte)'라는 '탁월함'의 뜻도 더해진다. 인간은 '정의, 지혜, 용기, 절제' 등의 4가지 덕목을 갖추고 이를 성숙, 심화, 완성함으로써 진정한 '자기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7]

7 <의무란 무엇인가>,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 저·박종대 역, 열린책들, 2021.

이반 일리치는 기술을 '자율적 기술'과 '타율적 기술'로 구분한다. 이반 일리치의 기술은 앙드레 고르의 '열린 기술'과 '닫힌 기술'로 다시 정의된다. '열린 기술'이란 '커뮤니케이션, 협업, 타자와 교류를 증진하는 기술'이다. 반면 '닫힌 기술'은 사람들을 분단시키고 '이용자를 노예화'하며 '생산물 및 서비스 공급을 독점하는 기술'이다.[8] 생활문화에 대해, 예술의 맥락에서 기술적 측면을 다룬다면 '열린 기술'임에 분명하다.

4차산업혁명, 빅테크, 하이테크 등 기술중심의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희망과 새로운 가능성을 말하는 반면, 우려와 걱정도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 위기는 인간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믿는다. 그러나 기술은 오히려 인간의 자유와 해방 그리고 존재를 위협하며 지배할 수도 있다. '열린 기술'로서의 생활문화에 기대하는 이유다.

현재 중구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생활문화 논의는 긍정적인 면이 매우 많다. 생활문화를 예술 동호회의 활동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동네의 주민 일상 활동과 연대, 그리고 문화적 이해와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반을 중구라는 지역 공간과 중구 주민의 다양성에 두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향후 '열린 기술로서의 생활문화'가 '시민기술'로 어떻게 다시 규정되고 발전할지 활발히 논의되길 기대한다. '열린 기술'은 공유재(the common)로서 소중한 시민의 자산이다. 창의성은 자본주의 변신의 아주 유능한 만능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9] 인간과 지구가 공존하고 인간 상호 협력을 통해 사회와 삶이 지속가능하게 할 시급한 노력이 필요한 이 때, 창의성이 시민의 자산으로 우리의 삶과 사회에 널리 쓰이는 공유재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를 희망한다. 그 현실적인 실천이 생활문화라 믿기 때문이다.

8 <에콜로지카>, 앙드레 고르 저·임희근 외 역, 생각의 나무, 2008.
9 <도서관과 작업>, 옌뉘 안데르손 저·장석준 역, 책세상, 2017.

IV. 2021년의 생활문화, 그리고 그 다음

Keyword 동네친구들이 좋아한 것과 고민한 것

<중구지음>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활문화팀은 스무 명의 동네친구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고 2021 동네친구 사업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취향 기반의 모임이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예상과 달리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 모임을 하면서 종종 대립한 가치들은 어떤 것이 있나 등 질문이 이어졌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반복해 언급한 키워드들이 있었다. 그것은 모임을 하며 좋았던 부분이기도, 고민이기도 할 것이다. 한정된 지면으로 열 건의 인터뷰(1권 제2장 우리 동네 친구 이야기)밖에 담을 수 없었지만, 여기서는 다른 인터뷰이들이 말하거나 글로 적은 이야기들을 더 담아보았다. 이 키워드들은 2022년을 계획하는 주춧돌이기도 하다.

Keyword 1 지역성

👱 **천승우(약수 어벤저스 모임장)**

동네 이웃이 모여서 그런지 다들 중구에 대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약수동에서 *20*년 동안 산 저도 전혀 몰랐던 장소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신기하고 반가웠죠. 무엇보다 중구가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곳인줄로만 알았는데 분명 청년도 함께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본 것, 그리고 지역활동이 헌신적인 봉사가 아닌 스스로 재미를 느끼면서 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 좋았어요.

👮 **이상훈(신당동 동네친구 PM)**

'동네친구'가 일반적인 취향 기반의 커뮤니티와 다른 점은 역시 '동네'에 기반한다는 점입니다. 중구문화재단에서는 취향이라는 주제와 동시에 동네 기반의 커뮤니티에 무게중심을 뒀습니다. 같은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중구에 사는 사람들이 동네라는 작은 단위에서 서로 친구가 되는 시간을 만들고자 한 것이죠.

동네 기반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취향 기반 모임을 지원하는 것은 다양한 관계를 만들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회를 만듭니다.' 이 문장은 비약일 수 있겠으나 적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형성하는 일은 만남에서 시작되죠. 우리는 동네 사람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또 그들이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동네친구가 되길 바랐어요.

👩‍🎨 **허윤서(장충동 청년 크리에이터 모임 모임장)**

저는 오히려 동네 맛집을 잘 모르거든요. 일명 '먹자골목'은 시그너쳐 메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먹자골목을 만드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모임을 통해 하나 둘씩 동네 맛집을 발굴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동네친구 활동이 지역 홍보역할도 할 수 있지만 살고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동네를 달리 보는 계기를 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Keyword 2 유연성

👨 **박성진(민초파 사진모임 모임장)**

음, 모임 주제가 '모여서 뭔가를 하자'였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다꾸(다이어리 꾸미기)' 모임을 했을 때 아기자기한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셨겠지만 저는 완전 안 맞았어요. 근데 제 취향이 다르다고 해서 모임을 안 나갈 수는 없고. '개인차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성향이신 분들은 '이런 거 하는 데구나' 이러고 안 나오실 수도 있죠. 각자 원하는 것, 그게 사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무언가가 될 수도 있고요. 다음 주부터 치즈 케이크도 만들잖아요. 다들 마음에 들어하면 그걸로 2차·3차 또 할 수 있는 거죠.

👨 **김명웅(황학음감회 운영자)**

참가자들이 접근하는 데 문턱이 낮기 때문에 유연하게 진행했어요. 음악은 어려운 게 아니고,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만약 음감회에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만 틀었으면 아마 참여자들이 지루했을 거예요. 여기서 유연성이 필요한 거죠. 저는 프로그램 짤 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가수나 장르더라도 누구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대중성 있는 곡들로 구성하려고 했거든요. 참여자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곡으로 구성하는 데 가장 신경썼어요. 연령대도 다양하고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어느 한 장르에 꽂힌 분과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섞여 있어요. 그럼 모두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중립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Keyword 3 자발성

👮 **이상훈(신당동 동네친구 PM)**

황학음감회는 말 그대로 음악을 '감상만' 해도 되는 모임으로 최소한의 자발성을 가지면 참여가 가능했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 배는 바람만 불면 어디든지 갈 수 있거든요.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배에 타고 일단 심연 저 깊은 곳으로 각자 자신의 의지에 의해 나아가는 거죠.

🙋🏽 **김향자(로컬 크래프트 모임장)**

누가 시켜서 했다기보다 자발적으로 제안했고, 해야 되고, 또 잘해야 되니까 모임을 하게 됐죠. 그다음엔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정말 재미 없으면 못하죠. 또 같이, 새로운 걸 배우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재미를 넘어서 같이 나누는 재미. 매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가르쳐줬고 또 배워가는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는 걸 보고 "그래 이 맛에 그냥 같이 하는 거지" 이렇게 이끌어온 거죠.

Keyword 4 공공성

👩 **최상인(내일더그린 모임장)**

모임이 그래요. 한 번 만나러 나오기 어려워서 그렇지 그 한 번의 만남이 가진

힘이 정말 커요. 아이들이 자라 사춘기가 올 즈음이면 엄마들이 우울해져요. 엄마 뜻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어릴 때와는 다른 양육의 어려움이 찾아오거든요. 저 역시 한동안 아들 건강이 좋지 않았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 우울증이 찾아와 몇 달 동안 집에서 누워만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더 이상 그러면 안 되겠다, 밖으로 나가야겠다 결심하고 처음에는 돈이 들어도 뭐든 나갈 일을 만들기도 했죠. 점차 내게 도움되는 활동에서 더 나아가 남 그리고 지역에도 봉사해보고 싶어졌어요. 신기하게도 여기 모인 넷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김민석(2021청년창업팀 엔디멘션)

(질문자가 공공성과 관련해, '생활문화를 오래 연구한 임재춘 님이 역량강화 CoP 자리에서 "나 좋자고 하는 활동이 공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는 부분에 대해) 예를 들면 컵에 물이 넘쳤을 때, 넘친 양 만큼 공익으로 가야지 (모임에서 개인이 추구하는 개인성과) 균형이 맞아요. 물이 다 차지 않은 컵에서 물을 덜어주며 공익을 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 번은 가능해요. 그러나 오래 유지될 수 없어요. 유지될 수 없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특히 공공의 영역에서는요.



유은솔(장충동 동네친구 PM)

(동네 활동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이런 활동들이 결국 사람들과 같이 하는 활동이잖아요. 개인의 참여를 넘어 이 모임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동네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점차 개인화 되는 요즘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eyword 4 정체성



허윤서(장충동 청년 크리에이터 모임 모임장)

모임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무척 어려웠어요. 제가 모임장으로서 너무 큰 부담을 느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마켓, 친환경과 같이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잡았더라면 어떤 활동을 할지 명확하게 계획할 수 있었을 텐데 '*20*대'라는 공통분모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감이 도통 안 잡히더라고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엔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서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모임에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유은경(로컬 크래프트 참여자)

('동네친구 모임이 잘 이어지기 위해, 개인의 정체성을 고집하기보다 공동체성을 우선 생각하는 사람이 좋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정체성·지향이 뚜렷한 사람이라면 정체성에 맞는 조직·집단을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동네친구 모임의 경우 처음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게 의도이기도 했고요. 그중에서 이 동네에는 미술, 저 동네에는 봉제 모임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중구 각 동별로 그런 모임이 있어도 되지만 그걸 하나로 모아도 괜찮을 거야, 라고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뭉쳤다 풀어졌다 뭉쳤다 풀어졌다 열어놓고 생각해야 하는데 '이건 꼭 이런 방향이야' 뚜렷하게 정하면 그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과 아닌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Keyword 6 주체성

🙎‍♀️ **글로리아(장충동 친환경모임 모임장)**

모임에서 구심점 역할을 할 리더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환경이 마련돼야 어떤 활동이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무리 바빠도 스스로 시간 내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지만 '오세요!'라고 부추기는 누군가가 있어서 모임 참여도가 높아지기도 해요. 그렇게 부추기는 역할을 리더가 잘 하는 것, 그리고 모임원 각자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것도 활동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Keyword 7 연계성

💁‍♀️ **조예림(차담 운영자)**

중구문화재단에서 연계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희 가게에서 자체적으로 차담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게 힘들어졌고 프로그램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던 찰나에 재단 생활문화팀 쪽에서 제의를 해주신 거죠. 조금 방식을 바꿔서 발전시켜보자고 이야기 해주셔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 **김향자(로컬 크래프트 모임장)**

'중구는예술대학' 1기를 수료했는데 거기 계시던 강사님이 중구문화 재단에 저를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분과 제가 뜻이 맞아서 연락을 계속 나눴고 이 모임(동고동락365)에 저를 추천하시면서 올해도 인연을 계속 이어온 거죠. 작년에 생활문화 활동의 일환으로 신당5동, 동화동 주민들이 모인 '동고동락'이라는 팀에서 지금 로컬크래프트의 주요 멤버들과 동네 활동을 했고, 올봄에는 '내:일가치 챌린지' 공모사업에 저희가 제안한 프로젝트(앞치마 만들기)가 선정됐어요. 중구문화재단 매니저님이 저희가 재봉틀 다루고 리폼 같은 게 되니 동네친구 사업의 관련 팀과 연결해 신당놀놀의 '로컬크래프트'까지 이어진 거예요.

Keyword 8 접근성



남오일(백학사진관 운영자)

사람들과 관계 맺기가 힘들었고, 처음에는 저희 사진관 위치가 시장 메인 골목에 있는 게 아니고 *3~5*분 정도 걸어야 할 만큼 떨어져 있어서인지 상인분들께 설명을 드려도 시간 뺏길 것 같으니까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시장 메인골목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지나가시는 분들 반응이 되게 좋아졌고, 근데 막상 상인 분들 찾아가면 "나중에 갈게~" 하면서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떡도 돌려봤고요. 제가 서너 번을 찾아가봤는데 더 찾아가면 너무 실례가 될 것 같아 그게 참 어려워요.



김명웅(황학음감회 운영자)

음악을 소개하고 다른 참여자 분들과 감상을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구상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한 공간에 여러 사람이 모이기 어려워지면서 그냥 특정 시간 동안 음악을 플레이하는 것으로 방식을 바꿨어요. 그래서 '듣기만 하는 음감회'가 됐지만 그게 오히려 더 좋은 반응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모임을 위해 뭔가 준비하지 않고 그냥 와서 음악을 듣기만 하면 되니까 한결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 해요.

Keyword 9 개인성



박선영(메이커톤 와이뉴 프로젝트 PM)

일단은 또 하고 싶어요. 부족한 게 있어도 해보고 싶고, 부족한 지점이 고쳐지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참여에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하기 힘든 프로젝트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술적으로나 인프라 측면에서나 저에겐 기회니까요. 메이커톤 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요, 다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좀 다양하게 하고 싶은 바람이 있어요. 주민 참여를 더 늘린다든지 이벤트 또는 사진전 등, 올해보다 더 재미있게 하고 싶어요.



글로리아(장충동 친환경모임 모임장)

사실 아이 키우고 그렇게만 살다가 삶의 반경이 조금 넓어진 것 같아요. 늘 만나던 사람 말고 어떤 분들이 있나 알게 되고, 우리 동네에 가보지 않은 곳을 가게 되고. 새로 알게 되는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눈이 넓어지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새롭게 재발견한 것이 좋았네요.

IV. 2021년 생활문화, 그리고 그 다음

Keyword 10 확장성

💁‍♀️ **조예림(차담 운영자)**

저는 중구 거주민의 연령대가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젊은 분들도 계시고,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관심사도 무척 다양하더라고요. 이런 점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차담을 하면서 중간에 한번 매듭공예 번개 소모임을 하게 됐는데 그거 말고도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요소가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안에서 조그마한 모임을 더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긴 했어요. 차담은 차담대로 하는데 '가게에 와서 밀랍랩 만들고 싶은 사람은 만들어라, 자리를 빌려줄게.' 이러면서 만들거나. 후속 모임이 나오면서 사람들끼리 따로 모이고, 얘기하다가 나온 공통관심사로 다시 모이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 **박선영(메이커톤 와이뉴 프로젝트 PM)**

이제 좀 확신이 생겼고, '와이뉴 프로젝트'를 더 알려야겠다, 이 가치를 나누는 데 좀 더 힘을 써야겠다 싶어요. 지금까지는 메뉴 개발 등 다른 쪽에 신경을 더 썼거든요. 앞으로 개인적으로도 작가들과 콜라보도 해보고 싶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어진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 장소가 카페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변신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도 봤기에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볼 것 같아요.

Keyword 11 커뮤니티 허브

👩 **이원경(황학동 동네친구 PM)**

(질문 '동네친구에서 제일 좋았던 핵심 기억은 무엇인가'에 대해) 연결되는 지점 같은 걸 발견했을 때 재밌었죠. 예를 들면 필드에서 활동하는 작가와, 미술사를 전공한 학부모 참여자 같은 경우 제가 먼저 말을 걸어서 이런 저런 얘기를 꺼내기 전까지는 서로 같은 분야에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없잖아요. (중략) 원래 황학동에 개성 있는 작가가 많아요. 그런 걸 이 모임을 계기로 기록하다는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어요. 동네 활동을 하면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의미를 찾은 것 같아요. 거창한 전문지나 매거진에서 작가들을 조명하듯 동네친구들이 만드는 황학동의 프로젝트에서 소개할 수 있는 작가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 대단한 힘을 가진 건 아니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그만의 결과물이 된달까요. 여기를 통해서만 이 작가가 소개된다, 이런 특별함. 여기는 작가들이 주도하는 개별 프로젝트도 많거든요. 그중에서 비교적 좀 조명이 덜 된 작가들을 소개하면 어떨까 하는 의도에서 시작하는 거죠. (중략) 지금 딱 여기에서 가능한, 시의성에 맞는 뭔가를 하는 거죠. 기록물로 완성하는 그런 케이스가 될 거예요.

박선영(메이커톤 와이뉴 프로젝트 PM)

저희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외부 아티스트 공모·섭외 과정이 있었는데요, 더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놓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람들이 동네친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알리는 게 필수적이죠. 와이뉴 프로젝트의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진행이 마무리되는 편이어서, 모임 안에서 관계를 지속하고 콘텐츠를 심화하는 것보다는 매번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새로운 영감을 주는 게 더 발전적이에요. 그런 점에서 홍보와 많은 이들의 참여가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Keyword 12 과정 vs. 결과

홍세현(다산동 동네친구)

결과물이 안나올수도 있으니 그 고비를 잘 넘겨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납득이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편이어서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의미라는 게, 제가 생각한 의미와 저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달라도 되는 거였어요. 무언가를 최종적으로 실행하고 감동을 함께하는 이들 중엔 그곳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었어야 했던 거죠. 우리는 너무 퍼포먼스에 집중을 했던 게 아닐까.... 사실 다 지나고 보면 그래도 우리가 하고 싶었던 단 하나는 친구가 되고 싶었다는 거. 너무 원초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아무도 캐치하지 못했을 뿐이지 사실 같은 방향이면 그걸로 됐다 싶더라고요.

정승욱(다산동 동네친구)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모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느꼈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의미부여도 어쨌든 느낀 것을 정리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재미있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재미있었다' 했을 때 성공적인 모임인 거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허윤서(장충동 청년 크리에이터 모임 모임장)

결과물이나 성과에 대해서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뚜렷한 목표 없이 사람들만 모였을 때 오히려 모임 유지가 잘 안 된다고 보거든요. 구체적인 기획 없이 그저 '동네친구'라고 해서 모였다가 본인이 기획을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자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고 참여를 망설이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다 보면 모임이 정체되요. 처음부터 동네랑 좀 연관성 있는 기획, 예를 들면 마켓 개최를 위한 모임, 동네 축제를 준비하는 모임 등 큰 틀이 되는 목표를 정하고 동네친구들이 그걸 채울 콘텐츠를 기획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큰 틀 안에서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구성원 간의 활발한 의견교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봐요.

IV. 2021년 생활문화, 그리고 그 다음

01. 동네친구 사업의 대상은 누구인가

☀ **지역문화·예술교육·주민자치와의 차이로부터**

동네친구라는 친숙하지만 추상적인 개념 아래서 1년 동안 우리는 어떤 대상은 적극적으로 안아야 하고 어떤 대상은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지 종종 혼란스럽기도 했다. 이러한 이슈는 중구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생활문화 현장에서 종종 제기되는 질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생활문화와 유사한 개념의 이슈를 다룬 다른 사업들과의 차이를 간략히 짚어봄으로써 동네친구 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해보려고 한다.

먼저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그리고 예술교육의 차이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서울문화재단은 <자치분권형 서울 지역문화 활성화 전략 수립 연구> (2021, p105)에서 지역문화·생활문화·예술교육은 같은 지역 현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업의 목표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밀접하게 만나는 사업의 대상도 조금씩 다르다고 언급한다.

구분	사업 목적 및 추진 방안
지역문화	서울의 25개구를 중심으로 광역-기초 문화 분권에 기초한 포괄적, 보충적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의 다양성, 고유성이 살아있는 건강한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
생활문화	지역문화자원 및 특성, 다양한 생활문화주체들이 생활권에서 자연스럽게 소통·연결될 수 있는 기반조성 지원
예술교육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확대, 다변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자치구 문화재단 역할 강화

- 표 1 -

구분	사업 이해관계자
지역문화	지역 활동가 (창작자, 예술인, 문화공간 등)
생활문화	소수의 활동가 + 다수의 시민
예술교육	예술교육 현장의 예술인, 예술강사, 활동가

- 표 2 -

실제로 [표 2]의 내용처럼 각 동별 PM이나 기획형 살롱 혹은 프로젝트의 몇몇 활동가를 제외하면 중구문화재단 동네친구 사업 역시 다수의 시민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었다. 다시 말해 [표 1]의 생활문화 사업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2021 동네친구 대모집은 이미 본인들의 커뮤니티와 활동력을 가진 활동가 단위가 아니어도 주민들이 본인들의 생활권에서 생활문화주체로서 등장할 수 있는 계기이자 기반이 되어주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어지는 질문은 생활권의 주민자치와 생활문화가 어떻게 다르냐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다르다. 주민들의 일상에 있어서 주민자치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이 되어야 할 바탕이라고 한다면 생활문화는 그렇게 바탕이 갖추어진 일상을 보다 다채롭게 할 문화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스튜디오 빼꼼 대표 임재춘은 <중구문화재단 2021 생활문화 인력강화 워크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고민하고 지향점을 갖는 것 자체가 생활문화 지향점을 갖는 것이라며 문화재단의 공공재원은 주민들에게 문화를 통해 그러한 질문의 기회를 열어주는데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이번 동네친구 사업과 같이 꼭 취향·취미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문화경험을 통해 일상에서 살고 싶은 삶을 고민하고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생활문화의 특징이다.

결론적으로 2021 동네친구 사업의 대상은 중구 생활권의 주민이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주민자치와 공통되거나 혼동되는 지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동네친구 사업의 대상설정은 옳았으며, 앞으로도 생활문화 사업의 주요 대상은 다수의 주민이 되어야 한다.

02. 동네친구들의 주체성

☀ **구체적 단계 설정의 필요성**

동네친구 사업의 대상이 중구 생활권의 주민인 것은 바람직했으나, 그렇게 모집된 동네친구들의 주체성이 올해 또 하나의 이슈였다. 다시 말해 재단이 기대했던 주민들의 참여 정도와 주민들의 실제 참여 정도가 달랐다. 동네친구 사업을 기획할 때 중구문화재단은 주민들이 기획자 단위의 레벨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동네친구 모집에 지원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따라서 초반에 동네친구들이 2021 동네친구 사업을 통해 실현해보고 싶은 아이디어들을 취합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총 3차에 걸쳐서 진행했고, 초기대응이 어려웠던 이유도 그 자리에서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취합되었기 때문이다. 즉 생활문화 주체로서는 참여하고 싶지만 주도적인 역할은 재단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양가감정이 2021년 동네친구 사업을 통해 파악된 동네친구들의 주체성이었다.

위와 같은 양가감정은 다음과 같은 현상을 야기했다. 먼저 동네친구 세부 프로그램들이 주민들의 발의로 출발했으나 후반으로 갈 수록 재단담당자가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으면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그렇다보니 내부의 운영 효율은 떨어지고 주민과 재단 사이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간극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동네친구 활동이 단순한 참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성과를 발생시켜야 하는 것 같다며 부담을 표현했다. 이러한 현상의 문제는 그 문제가 지속될 경우 자치구문화재단과 주민의 상호신뢰가 감소하고, 바람직한 주체성의 정도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를 행정피로로 오해하여 생활문화를 향한 의지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동네친구들의 주체성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 설정의 필요성을 느꼈다. 2020년의 Top-down방식에서 2021년 Bottom-up방식으로의 변화는 매우 유의미했으나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거쳐야 할 도약의 단계가 더뎠음을 알게 되었고, 중구 생활문화 현장의 장기적 청사진을 위해서는 구체적 단계 설정이 필요하다. Moore(2005, 26p)는 공공가치를 위한 예술기관의 역할 중 하나가 청중개발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청중이란 공연과 같은 수동적 문화 관람의 형태에서는 좁은 의미의 관객을 의미하는데 그칠 수 있지만, 생활문화 현장에서는 당장 활동의 주체가 될 다수의 시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2022년 동네친구가 참여하는 살롱의 형태를 중간 단계인 주민발의 기획형으로 진행하거나, 역량강화 CoP의 대상을 주민으로 확대하는 등 주민 주체성 개발의 구체적 단계 설정을 구상 중이다.

03. Covid-19

☀ **위드코로나 시대의 생활문화**

중구문화재단 동네친구 사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2021년 이슈 중 코로나는 제외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생각보다 끊임없이 늘어나는 확진자 수와 변이 바이러스, 그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방역수칙에 따라서 동네친구 프로그램 역시 영향을 많이 받았다. 2021 동네친구 사업을 양적으로 최종 회고한 <중구 설문: 그래픽으로 보는 동네친구>에서 "코로나가 없었다면 올해 활동이 지금과 크게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130명의 응답자 중 총 94.6%의 동네친구가 '아주 그렇다(65.4%)'와 '조금 그렇다(29.2%)'를 선택한 것을 보면 과연 그 영향력을 알 만하다.

실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미루어지거나 취소됐고, 대부분의 경우는 규모를 축소하거나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대체했다. 아무도 미리 예상하거나 경험해본 재난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이슈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2021년 동네친구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 주민들의 아쉬움을 샀다는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다. 백신이 도입되면 잠잠해질 것이라 기대했던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실제 위드코로나를 실천하는 나라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드코로나 시대의 생활문화를 그려보아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예술>에서 강윤주, 박승헌(2020, 8p)은 코로나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실현 속도가 느렸던 여러 요소들의 실현 가능성을 선명하게 드러나게 해주는 계기가 되어준다고 주장하며, 네트워크 사회에서 문화예술과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소개한다(2020, 92p). 중구문화재단 2021 동네친구 사업에서도 귀감이 될 만한 사례들이 있었다. 추석 특집 프로그램으로 마련한 '잔소리 대피소'는 온라인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해 진행했다. 이러한 온라인 프로젝트가 아니었더라면, 자치구 문화재단의 생활문화 행사가 연휴 72시간 내내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되는 시도는 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청구동 다도살롱 차담은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의 페르소나를 다루려던 회차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자 코로나를 기점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즉 위드코로나 시대의 생활문화에 있어서 대면이냐 비대면이냐는 최종 과제가 아니다. 이제는 생활이 될지도 모르는 위기를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 기회로 만들고, 얼마나 생활문화 주체들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네트워크 장에 녹아들었는지 확인하며 주민들의 전환을 도와야한다.

04. 짜장면보단 멘보샤를 먹어보는 용기

누군가 중국집에서 "오늘 내가 다 살 테니 무엇이든 골라봐라"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떤 메뉴를 고를 것인가?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경우 보통 먹어봤던 경험이 있어 그 맛이 확실한 것, 혹은 내가 먹어봤지만 평소에 비싸서 자주 먹지 못했던 것을 주로 고른다고 한다. 필자는 아직 멘보샤를 먹어보지 않았다. 자주 먹어본 짜장면, 짬뽕 중에 이 집이 잘하는 것을 고르거나 아쉬우니 탕수육이나 깐풍기 등은 시킬 수 있지만, 맛이 보장되지 않고 나에게 맞는지 경험이 없는 멘보샤를 고를 확률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멘보샤와 같은 모험을 할 확률은 600만 분의 일보다 낮다.

☀ 짜장면보다 멘보샤를 먹어보는 용기를 주고 받자

경험은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을 낳는다. 아직 안 해본 것, 혼자 하기 두려웠던 것, 해보지 않았던 것을 해보고 실패할 경험도 제공하는 중구 동네친구 사업은 관계와 경험을 쌓는 사업이다. 경험한 것이 많아지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진다. 작은 성공들을 자주 하다 보면,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바로 실행에 옮기는 힘을 얻을 수 있다. 2021년 중구 동네친구 사업을 통해 우리는 동네에 아는 사람이 늘었고(68%) 즐거운 감정을 느끼는 횟수가 증가하고(87%) 동네의 새로운 점을 발견해볼 수 있었다. 씨앗프로젝트처럼 작지만 동네에 없던 새로운 시도들로 '동네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인식과, 같은 주제로도 다르게 활동해 보는 다양한 방법을 서로에게 배울 수 있었다. 코로나 심화로 서로의 거리가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와르르 온라인 공간에서, 때로는 삼삼오오 우리동네 커뮤니티 공간에서 만나고 부대끼며 우리동네의 활력을 체감하고 각기 다른 삶의 온도를 나눴다.

☀ 모두가 반장일 필요는 없다

각자 삶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생활' '문화' '예술'의 모양처럼 (1권 p.24 생각해보기 생활문화는 무엇일까?) 생활문화에서 각자의 모습 또한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구 동네친구 대모집을 통해 모인 사람들과 발견된 공간들로 개인의 관심사에서 지역으로 시선을 전환해보는 시도는 가능했지만, 아직 취향을 공유하는 것에 목마른 사람과 그 취향을 갖고 지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길 원하는 사람까지 희망하는 활동의 정도와 깊이는 모두 달랐다. 무심하게 지나치던 사람들이 각자 혹은 함께 색깔을 내고, 다양성을 인정해보는 경험을 얻었다. 막연하게 '하고 싶다'에서 시작된 혼자만의 생각이 살롱과 네트워킹 테이블을 통해 비슷한 수요를 가진 이웃을 만났다. 더 나아가서는 황학룩북 책자, 남북문화살롱 지도, 식신당 달력과 같은 결과물로 나와 우리동네를 사용하는 재미있는 방법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고, 함께 영화를 보거나 재능을 나누는 활동은 동네친구에게 성취감을, 참여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다음해 활동을 꿈꾸게 한 값진 경험으로 남았다.

☀ 시도는 새로운 요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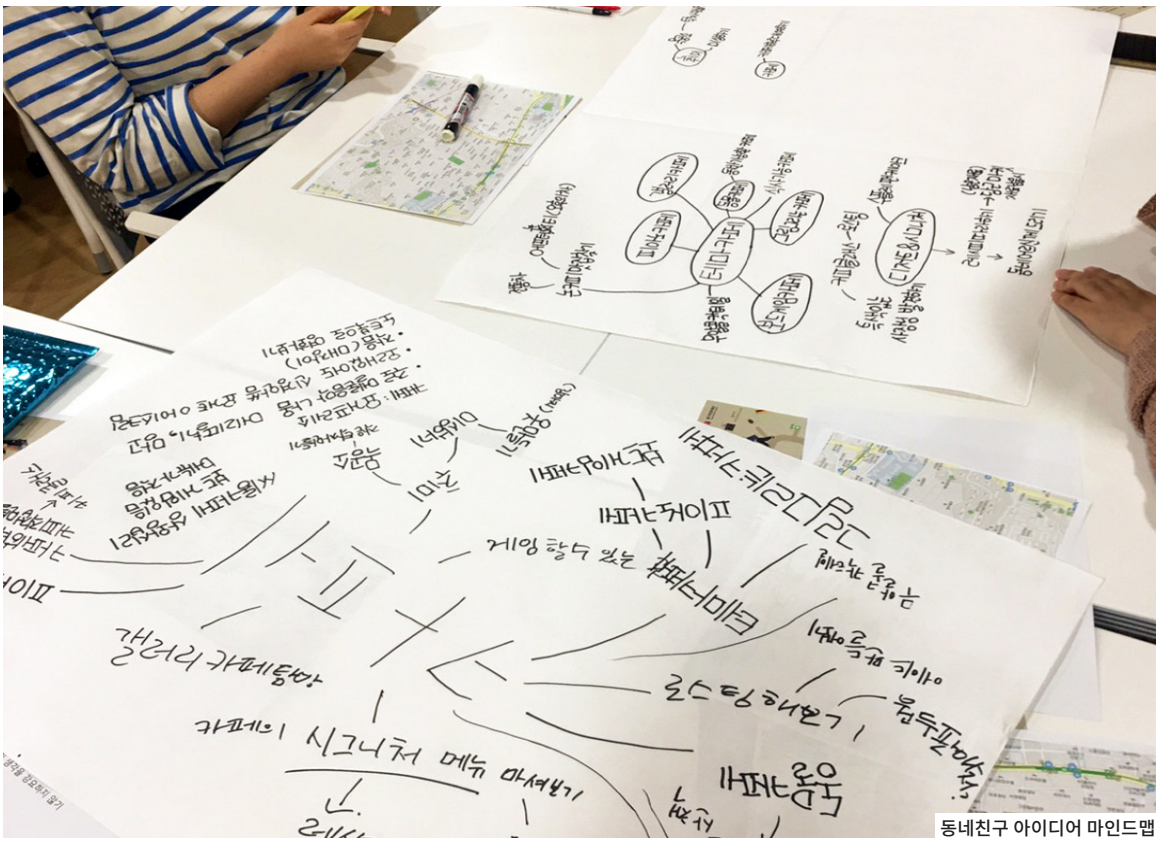
전년도의 다양한 시도와 관계들로 우리는 신당황학권으로 통칭되는 중구의 생활터전에서 새로운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 코로나로 멀리 있는 친구나 핫플레이스보다는 가까이 있는 이웃들을 들여다보고 걸어서 갈 수 있는 생활권 안의 동네에 주목하며 어쩌면 나의 동네생활이 아름다워질 수도 있겠다는 욕망을 가졌다. 욕망은 변화를 만든다. 욕망에서 출발한 다양한 시도들은 새로운 요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나만의 취향을 다른 이와 공유하고 무언가를 시도하며 이전에는 보지 못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경험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삶을 꿈꿔볼 수 있다.

> 예컨대 매년 소비트렌드를 분석하는 책 <트렌드코리아 2021>에서는 위와 같은 취향에서 출발한 시도에서 비롯된 새로운 요구를 잘 설명하고 있다(김난도 외, 283-296p).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운동트렌드가 다양한 종목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겨보고 싶다는 '경험의 확장'을 만들고, 운동을 하는 자신을 패션과 SNS 등을 통해 '자아의 확장'으로 이끌어내서,

IV. 2021년 생활문화, 그리고 그 다음



중구 음식으로 만나요 프로그램 결과물



동네친구 아이디어 마인드맵

따로 또 같이 뛰고 즐기는 '관계의 확장'까지 이어진다.

2022년은 자발적인 시도와 새로운 경험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진입유형별 활동지원을 펼쳐가려 한다. 반장을 하고 싶은 사람부터 누군가의 활동에 지지자가 되고 싶은 사람까지 생활문화활동의 진입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단계별 참여할 수 있는 활동구조를 마련해 기회를 확대하고, 진입유형별 다양한 사례 공유 테이블과 역량강화 워크숍을 마련해 새로운 친구들의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려 한다. 2021년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동네의 거점공간 및 공간운영자들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언제든 모일 수 있고, 무언가를 해보고자 할 때 누군가를 편히 만나 발전시켜볼 수 있는 자발적인 지역문화 활동의 터전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2021년 대부분이 주민발의를 기반으로 한 재단 주도의 모임과 프로젝트들로 이루어졌다면 2022년은 전년도 발견한 나의 취향과 동네의 특성과 이해, 문화적 가치 등을 기반으로 동네친구들이 더 신나게 놀 수 있는 모임이나 프로젝트들을 할 수 있는 동네친구들의 놀이터가 되보려 한다. 어떤 것을 갖고 어떤 놀이들을 하는지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네트워킹 테이블) 자율성과 자발성에 근거한 모임과 프로젝트 지원을 하되(활동지원) 혼자만의 욕망을 넘어 지역에 역할을 하는 큰 방향과 세부 활동원칙을 만들고 중간중간 서로 모임을 통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 다음은 어떻게 발전되면 좋을지 서로의 활동을 지켜보며 함께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어보려 한다.

05. 2022년 동네친구 놀이터

2021년, 새롭게 만나는 동네친구들과 첫 생활문화 경험과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2022년은 그 경험과 시도들에서 더 나아가 동네친구들이 동네를 갖고 잘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드는데 주력하려 한다. 경험이 쌓인 친구들이 무언가를 해볼 수 있도록 돕고, 방법을 모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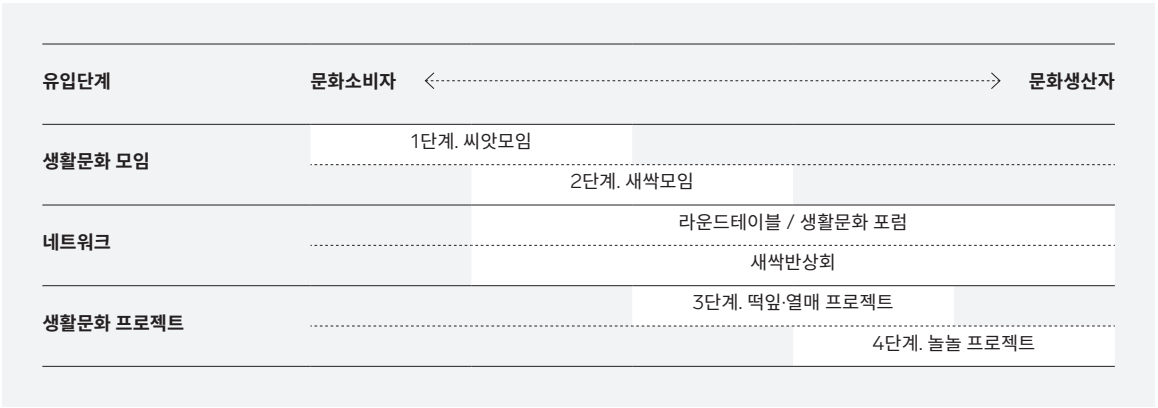
IV. 2021년 생활문화, 그리고 그 다음

친구들에게는 여러가지 방법을 서로 학습할 수 있는 네트워킹 테이블 및 워크숍들이 길잡이가 돼줄 것이다. 전년도에 우리가 무엇을 해볼 수 있을지 손을 잡고 함께 뛰어들었다면 올해는 보다 준비된 동네친구들의 활동무대를 만들어주는 해가 되길 바란다.

2022년은 최근 2년간 우리를 따라다녔던 코로나 19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각종 선거 등 크고 작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해이다. 우리는 지난해 취향을 통해 '하고 싶음'을 알아채고 이를 통해 동네를 이해하고 알아갔다. 작년의 나와 우리와 지역에 대한 알아챔을 기반으로 올해는 변화하는 시간과 나를 둘러싼 것들에 대해 더 세밀하게 감각하며 본질에 가까운 삶의 가치들을 표현했으면 좋겠다.

오래된 도심과 현대의 트랜디한 공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생기고 있는 감각적인 이 동네에서 미세한 변화들을 감각하고 좀 더 깊고 넓어진 즐거움들을 함께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목표	구분	사업내용
생활문화 기반 구축	사람	중구 생활권 <동네친구 대모집>을 통한 지역·취향·라이프스타일 기반 생활문화 모임을 통한 주체 발견
	공간	— 생활문화예술터 공간운영 및 활동 지원 — 동네 생활문화공간 신규 발견 (공방, 서점, 커뮤니티 공간 등)
	플랫폼	온라인 생활문화 플랫폼을 통한 정보 제공 및 활동 활성화
생활문화 생태계 조성	생활문화 모임	씨앗모임 ☞ 기획형: 지역 탐구, 취향, 취미, 공동 관심사형 모임 운영
		새싹모임 ☞ 자율형: 3인 이상 주민의 취향과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한 모임 지원
	네트워크	— 동별 활동가 간 사례공유 네트워킹 테이블 '새싹반상회' — 진입유형별 역량강화 워크숍
지역 대표 콘텐츠 개발	활동강화	떡잎 프로젝트 ☞ 제안자가 심사자가 되는 지역·취향 기반 프로젝트
		열매 프로젝트 ☞ 전문가 심사를 통해 보완·발전하는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생활문화 프로젝트	지역, 문화 특성에 맞는 중구형 생활문화 프로젝트 <00놀놀> 기획



＊ 사업 세부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록

01. 정량적 결과 보고



부록 01. 정량적 결과 보고

다산동 동네친구

다산동 주민들이 서로의 일상과 관심사를 나누고 함께 산책, 필름 사진 찍기,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경험과 문화예술적 시도를 해보는 모임

진행 기간: 2021. 5. 27. (목) ~ 현재 진행 중
진행 장소: 다산성곽도서관, 다산성곽길, 메모냅 스튜디오, 중구 일대 등
참여 인원: 20~50대 중구 거주민 21명

프로젝트 실행 과정	
2021. 5. 27. ~ 6. 26.	1~3회차 동네친구 오리엔테이션 — 빙고 게임을 통한 동네 공간 정보 공유 — 동네친구와 함께하고 싶은 활동 공유 — 개인의 관심사를 동네 모임으로 구조화하는 마인드맵 진행 — 도출한 모임 주제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활동 내용 논의
2021. 6. 18. ~ 11. 30.	취향 공유 모임 — 여름밤을 주제로 각자 준비한 음악을 함께 듣는 음감회 진행 — 동네친구가 알려주는 다이어리 꾸미기 — 인센스, 치즈케이크 만들기 등
2021. 10. 26. ~ 12. 9.	산책·일상 공유 모임 — 다산동, 장충동, 약수동을 포함한 중구 곳곳 산책하기 — 저녁에 줌(zoom)으로 모여 각자 집밥을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줌밥' 진행 — 맛집, 산책 등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기
2021. 11. 2. ~ 현재 진행 중	필름 사진 찍기 — 취향 공유 모임으로 시작하여 여러 회차 진행하며 필름 사진 찍기 모임으로 발전 — 산책 중 사진 찍기 등 모임에 따른 경계 없이 진행 — 이후 씨앗 프로젝트로 발전

좋았던 점

— 지형이 입체적이다보니 다니는 길로만 다니게 되었고 마주치는 사람이 비슷해서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또래인 사람과 다양한 연령층의 친구들을 만나게 됨
— 예술인이 많이 사는 동네로 특정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문화 및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고 서로 교류하며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많아지거나, 함께 작업해 볼 기회가 생김
— 각자 재능이 있는 분야에서는 흔쾌히 취미와 기술을 알려주는 자리를 주도했고 자발적으로 씨앗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지역 커뮤니티 및 소모임 관련 지속성에 대한 가능성을 알게 되었음

아쉬웠던 점

— 코로나 이슈로 인해 2개월 가량 공백기가 생기면서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친구가 생겼으나 조금 더 섬세하게 모임 참여를 권유하거나 안부를 묻는 등의 연락을 자주 하지 못했음
—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 함께 모였지만 성별, 연령대 등 공감대가 달라 모임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 극복하거나 이를 해소하지 못해 모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지 못했음
— 지역 생활문화사업과 지역 취미커뮤니티 활동의 경계에서 '참여자'인 동네친구들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즐거운 경험을 심어주려 했지만 일부는 그 경계를 넘어 불만이나 문의가 생기기도 함



부록 01. 정량적 결과 보고

장충동 동네친구

장충동 주민들과 삼삼오오 모여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소소한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해보는 모임

진행 기간: 2021. 5. 26. (수) ~ 10. 25. (월)
진행 장소: 다눔카페, 장충동주민센터 2층 북카페, 장충동작은도서관, 장충동 일대
참여 인원: 20~50대 중구 거주민 14명

프로젝트 실행 과정	
2021. 5. 26. ~ 6. 26.	1~3회차 동네친구 오리엔테이션 — 빙고 게임을 통한 동네 공간 정보 공유 — 동네친구와 함께하고 싶은 활동 공유 — 개인의 관심사를 동네 모임으로 구조화하는 마인드맵 진행 — 도출한 모임 주제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활동 내용 논의
2021. 8. 20. ~ 9. 10.	친환경/마켓 — 집에서 버리긴 아까운데 쓰지 않는 물건으로 마니또 게임 — 미니 백일장(장충동, 플로깅 삼행시), 장충동 플로깅 진행 — 친환경 상식 퀴즈, 광희동 토박이에게 동네 이야기를 들으며 광희문-장충동 플로깅
2021. 8. 21. ~ 10. 2.	산책/공간탐방 — 장충단공원-국립극장-남산산책로 산책, 장충동 역사탐방 코스 따라 걷기 (1~2회차) — 장충동의 오래된 음향장비 회사 및 냉장고문 카페 방문 — 한양도성코스 따라 걷기(다산성곽길)
2021. 8. 23. ~ 10. 25.	청년 크리에이터 — 마니또 게임, 장충동에서 하고 싶은 활동, 놀이 이야기

좋았던 점

-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이나 모임은 있었지만 동네친구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서 즐거웠음
- 동네에서 내가 느끼는 환경 관련 이슈를 동네친구와 함께 나눠볼 수 있어 새로웠음
- 기존에 알고 지내던 분들만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 동네친구 모임을 통해 동네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더 알게 돼서 기쁘고 반복되는 나의 일상에도 새로운 활력소가 됨
- 동네친구의 어려움을 듣고 같이 고민을 해결하고자 했던 게 기억나는데 그런 면에서도 보람을 느꼈음
- 코로나 상황이라 모임을 지속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동네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고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운 때에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었음

아쉬웠던 점

-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해왔고 개인적인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코로나로 인해 꾸준히 모이기 어려워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해 아쉬웠음

2021 중구 생활문화사업
공간살롱



부록 01. 정량적 결과 보고

황학동 '황학음감회'

황학동 신규 생활문화거점인 LP바 히피히피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음악을 들으며 활발한 소통을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문화를 형성하는 음악감상 살롱

진행 기간: 2021. 7. 26. (월) ~ 10. 25. (월)
진행 장소: 황학동 히피히피, 온라인-줌(zoom)
참여 인원: 20~50대 중구 거주민 80명

프로젝트 실행 과정	
2021. 7. 26.	황학음감회 1 히피히피의 영화음악 컴필 앨범 추천 — 황학음감회 소개 및 살롱 일정 안내, 참여자 소개
2021. 8. 2.	황학음감회 2 참여자의 추천 음악 — 누군가와 함께 듣고 싶은 음악 등 참여자의 추천음악과 사연 소개
2021. 8. 9.	황학음감회 3 양의 City Pop 추천 — 어떤 장르를 가장 많이 듣는지 공유하고, 새로운 장르와 친해져보기
2021. 8. 23.	황학음감회 4 양의 AOR 추천 — 미국 AOR(Adult Oriented Rock) 장르 소개
2021. 8. 30.	황학음감회 5 히피히피의 번안곡 추천 — 비교하며 듣는 재미! 외국곡을 재해석한 한국 음악 소개
2021. 9. 6.	황학음감회 6 양의 City Pop 추천 — 다시 찾아온, 'CITY POP' 장르! 선선해진 날씨와 어울리는 추천 음악
2021. 9. 13.	황학음감회 7 히피히피의 밤산책에 좋은 노래 추천 — 황학동 산책코스는 당.밤.청 (당연히 밤산책은 청계천!)
2021. 9. 27.	황학음감회 8 히피히피의 즐거운 헤어짐을 위한 노래 추천 — 두 달간 함께 음악을 들으며 월요병을 이겨낸 참여자들에게 보내는 선물
2021. 10. 1. ~ 10. 25.	황학음감회 후속 활동 — 황학동 벼룩시장 및 청계천 등을 배경으로 음감회 플레이리스트 영상 제작

좋았던 점

- 동네에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됨
- 나의 인생 음악을 공유하고, 매주 추천곡을 받아주셔서 좋았음
- 히피히피 사장님과 PM님이 소개해준 음악들과 장르들이 새로웠음
-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어서 사정에 따라 유동적인 참여 가능
- 음악이라는 컨텐츠로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음

아쉬웠던 점

-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참여가 쉽지 않은데, LP 음악은 현장에서 들어야 공간의 무드와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아쉬움
- 온라인 채팅, 오프라인 필담 등은 즉각적인 감상평 공유가 어려움
- 매주 참여 인원이 달라서 기대했던 것보다 참여자 간 소통이 힘들었음



부록 01. 정량적 결과 보고

약수동 ‘한 여름밤의 낭독’

약수동 신규거점 함께살이를 중심으로 희곡 낭독을 통해 극 중 인물에 몰입하고 평소 마음에 담아두었던 감정을 이웃들과 함께 해소함으로써 생활문화를 통한 마음 치유를 경험하는 연극 살롱

진행 기간: 2021. 8. 4. (수) ~ 9. 8. (수)
진행 장소: 온라인-줌(zoom), 함께살이
참여 인원: 20~60대 중구 거주민 9명

프로젝트 실행 과정	
2021. 8. 4.	OT 및 아이스브레이킹 — 작가 및 작품 소개 — ‘지금은 통화중’ 드라이 리딩을 통한 작품 및 인물 이해 — 첫 리딩 후 느낀점과 작품에 대한 생각 공유
2021. 8. 11.	연극놀이1 ‘가방을 든 자화상’ — 시각적인 것으로만 자신을 표현하며 비언어적 소통 경험하기 — ‘거룩한 지옥’ 드라이 리딩을 통한 작품 및 인물 이해 — 작품에 대한 감상 공유
2021. 8. 18.	연극놀이2 ‘우연한 소개’ —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나 이야기를 참여자끼리 돌아가며 나열하고 우연적 스토리 전개를 담은 새로운 이야기 만들어내기 — ‘내 애인의 아내’ 드라이 리딩을 통한 작품 및 인물 이해 — 작품에 대한 감상 공유
2021. 8. 25.	연극놀이3 ‘핫시팅’ — 작품 속 인물이 되어 질문을 받고 답하기, 인물의 심리와 상황을 자기화 시켜봄으로써 작품과 인물에 더 가까이 접근 — 3가지 작품 중 1가지를 선택, 배역 캐스팅 및 대본 리딩 — 연극놀이와 작품 리딩에 대한 경험 및 감상 공유
2021. 9. 1.	연극놀이4 ‘인물의 행동 찾기’ — 작품 속 상황에 나오는 물건·행동 등을 상상하고 재연, 오브제·소품·메이크업·의상 등 직접 준비하고 실전 낭독 — 작품별 낭독회 리허설, 경험 공유
2021. 9. 8.	2인 1조 작품별 낭독회 리허설 — 서로 배우와 관객이 되어주는 미러링 낭독회 진행 (팀 당 15분) — 낭독회 및 살롱 후기 공유

좋았던 점

—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
— 연극 속에서 내가 아닌 새로운 캐릭터를 통해 다양한 시선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고 힐링도 경험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작품 선정이 훌륭함
— 서로 점점 발전되는 모습이 보여서 뜻 깊었음

아쉬웠던 점

— 작품 내용이 너무 좋았으나 남자 역할을 맡을 남성 참가자가 없어서 아쉬움
— 진행 횟수가 더 늘어나면 좋겠음



부록 01. 정량적 결과 보고

약수동 '뜻밖의 꿀잠 여행'

약수동 뜻밖의 상담소를 거점으로 하는 마음 건강 살롱으로서 주민들이 잠을 주제로 각자의 경험을 공유해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명상 실습으로 보다 나은 일상을 향유하는 불면증개선 살롱

진행 기간: 2021. 8. 13. (금) ~ 9. 3. (금)
진행 장소: 뜻밖의 상담소, 온라인-줌(zoom)
참여 인원: 20~30대 중구 거주민 7명

프로젝트 실행 과정	
2021. 8. 13.	꿀잠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꿀잠을 자는데 도움 되는 정보 알기 — 참여 동기 및 잠과 관련된 고민, 경험 공유 — 현재의 마음과 신체의 감각을 알아채는 명상법 실습 — 잠의 원리와 관련된 시청각 자료 감상
2021. 8. 20.	반복되는 악몽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꿈의 메시지를 듣고 이해하기 — 반복적으로 꾸는 꿈의 경험 공유 — 참여자 간 질문을 통한 꿈 해석 실습 — 꿈을 꾸는 이유와 잠의 연관성과 관련된 시청각 자료 감상
2021. 8. 27.	스트레스는 불면에 어떤 영향을 줄까? 꿀잠 유도하는 방법 익히기 — 요즘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스트레스,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을 겪었던 경험 공유 — 명상을 통한 이완법과 이완 상태에서 깨어나는 운동법 실습 — 스트레스와 불면의 관계를 담은 시청각 자료 감상
2021. 9. 3.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불면증의 원인과 대처방법 알기 — 참여자 요청으로 꿈 해석 실습2 — 나만의 꿀잠 노하우 공유 — 불면증의 원인과 대처방법과 관련된 시청각 자료 감상

좋았던 점

— 각자의 꿈을 소개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진지하게 호기심을 가지고 분석하는 시간이 좋았음
— 명상법이 기억에 많이 남고 그 이후에도 이따금씩 해보고 있음
— 생소한 주제지만 재단에서 운영하는 모임이라 안전하게 느껴짐
— 편안한 분위기에서 친밀한 대화를 나눔

아쉬웠던 점

— 대면 모임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된 점
— 기대했던 것보다 전문적인 내용이 부족



부록 01. 정량적 결과 보고

청구동 '차담'

청구동 찻집 이세계다실을 거점으로 개인여가로 생각되는 다도에 이웃과 함께하는 경험을 체험함으로써 생활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동네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힐링 살롱

진행 기간: 2021. 9. 30. (목) ~ 12. 7. (화)
진행 장소: 이세계다실, 온라인-줌(zoom), 게더타운
참여 인원: 20~40대 중구 거주민 107명

프로젝트 실행 과정	
2021. 9. 30.	이세계다실로 오세요 — 이세계다실 찻집에 방문하여 동네친구와 인사 나누고 오늘의 기분에 따른 차를 추천받아 여유롭게 마시기
2021. 10. 7.	문향: 들을 문, 향기 향 — 백차 백호은침, 청차 아리산오룡, 홍차 일월담홍옥 마시며 서로 알아가는 시간 가지기
2021. 10. 14.	안전한 행복 — 우롱차 농향사계춘 마시며 내 주변에 있는 안전한 행복 찾아보기
2021. 10. 21.	취미: 마음두다 취, 맛 미 — 우롱차 삼림계금훤과 밀향오룡을 마시며 서로의 취미 수업 품앗이하기
2021. 10. 28.	가족 이야기 — 우롱차 고산오룡을 마시며 이웃과 함께하는 가족역할극을 통해 가족의 마음과 나의 마음 이해해보기
2021. 11. 4.	미미: 아름다울 미, 맛 미 — 우롱차 동방미인을 마시며 사회가 규정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웃과 공감해보기
2021. 11. 11.	메타 페르소나: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 — 홍차 정산소종과 운남전홍을 마시며 내가 바라는 내 모습의 아바타를 만들고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에서 놀기
2021. 11. 18.	비대면 대화의 기술 — 백차 월광백을 마시며 위드코로나를 맞아 갈등 없는 비대면 대화법 연구해보기
2021. 11. 25.	발효된 우리의 관계 — 홈메이드 콤부차를 만들어보며 친해진 우리의 관계 되돌아보기
2021. 12. 2. / 2021. 12. 7.	배저향: 찻잔에 남은 향기 — 각자의 콤부차를 가져와 마시고 자기만의 콤부차 블랜딩하기

좋았던 점

- 이세계다실 선생님들의 전문성과 따뜻함
- 담장자님이 한 명 한 명의 참여를 애정을 가지고 끌어주시는 느낌
- 진짜 친구 같은 분위기
- 매주 다양한 차와 프로그램

아쉬웠던 점

- 전체 대면 회차일 줄 알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일부만 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함
- 시즌2로 후속모임을 이어가고 싶은데 이세계다실이 사라짐



부록 01. 정량적 결과 보고

중림동 '중림산책'

중림동 일대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들이 함께 산책을 하며 친목을 나누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과정을 통해 살고 싶은 우리 동네를 그려보는 살롱

진행 기간: 2021. 8. 20. (금) ~ 11. 30. (화)
진행 장소: 서울로 7017,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애견동반 가능 카페 (와샌, 커피빌라)
참여 인원: 20~50대 중구 거주민 9명

프로젝트 실행 과정

2021. 8. 20. / 2021. 8. 22.	중림산책 오리엔테이션 진행 — 참여자와 반려견들을 소개하며 얼굴을 익히고 친해지는 시간을 가짐
2021. 8. 28.	반려견 산책 교육 — 반려견 전문 트레이너 '마이콩 홍석민' 선생님을 초대하여 산책을 위한 반려견들의 행동교정과 기본 에티켓을 배워 산책 실습을 해봄
2021. 9. 4.	중림동 애견동반 카페 '커피빌라'에서 대면 오리엔테이션 진행 — 반려견 산책 교육 때 배웠던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자신의 반려견의 평소 습관과 즐겨가는 산책 코스에 대해 이야기 나눔
2021. 9. 8.	서울로 7017에서 반려견들과 모여 함께 산책 — 서울로 7017에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중림동의 반려견들이 함께 모여 질서정연하고 안전하게 함께 산책을 진행
2021. 9. 11.	서소문 역사문화공원을 함께 산책 — 서소문 역사문화공원을 산책해보며 어디까지 반려견의 출입이 가능하고, 어떤 코스로 산책을 하면 반려견들이 더 안전하고 즐겁게 산책할 수 있는지 산책 코스를 직접 탐방
2021. 9. 25.	손기정 체육공원 내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 루트를 찾아봄 — 직접 반려견들이 모여 산책을 진행해 본 결과 러닝트랙과 농구장 등 반려견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 많아 반려견 산책 장소로 적합하지 않음을 발견함
2021. 10. 2.	중림동 내 애견카페 '와샌'을 함께 방문하여 공간을 살펴봄 — 야외 테라스석에 한해 반려견들이 배변 패드를 사용한 채로 인조잔디 위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어 사람과 반려견이 모두 쉴 수 있는 공간임을 발견하게 됨
2021. 11. 1. ~ 11. 19.	— 단톡방 공지를 통해 마음에 맞는 반려견의 친구와 짝지어 지역을 기반한 다양한 활동을 한 후 심사를 통해 성실한 팀에 반려견 선생님의 1:1 코칭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021. 11. 29. ~ 11. 30.	— 성실하고 활발한 활동을 한 팀을 선정해 반려견 선생님의 가정방문을 통해 반려견을 슬기롭게 키우는 환경을 만드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짐

좋았던 점

- 평소 강아지 산책을 혼자 했었는데 누군가와 함께 해서 더 즐거웠던 것 같음
- 늘 가던 산책 루트 외에 다양한 산책 장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함께 가니 혼자 갈 때 겪었던 시행착오가 한결 덜어진 기분임

아쉬웠던 점

- 참여자 수가 적은 편이라 자기 강아지에 맞는 친구를 맺어주기가 어려웠음
- 참여자 연령대가 다양하여 친해지는 데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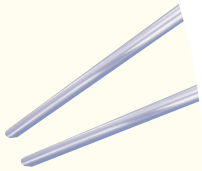
서울도서관 Seoul Metropolitan Library · 남북하나재단 Korea Hana Foundation

2021 북한이탈주민 독서 프로그램

음식으로 만나요









같지만 서로 다른 우리, 서울 중구에서 만나보는 북한,
북한 음식 인문학을 알아보고, 살롱에서 남북문화를 이해해 봐요

매월 셋째주 토요일 10:30 ~ 12:30 가온도서관 문화강좌실		북한을 알아보는 **북한 음식 인문학 프로그램**	
1차	6.19.(토) 10:30~12:30	**오늘의 북한을 만나다** 『한국이 낯설어질 때 서점에 갑니다』 저자	김주성 [탈북작가 / 배우고나누는무지
2차	7.17.(토) 10:30~12:30	**북한의 문화와 음식을 만들다** 북한의 시장 문화(장마당)와 북한 음식 체험	제시킴 [주식회사 제시키
3차	8.21.(토) 10:30~12:30	**북한의 식문화를 이해하다** 북한의 식문화를 통한 북한 소개	권효기 [독립기획자 / 케
4차	9.18.(토) 10:30~12:30	**북한을 그리다** 북한의 음식과 문화, 식재료를 그려보기	[그림작
5차	10.16.(토) 10:30~12:30	**북한을 표현하다** 북한의 음식과 문화를 시적인 언어로 다양하게 표현	[문학작



대 상 도서관 이용자 및 북한문화와 음식에 관심있는 ㅈ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http://bit.ly/북한음식인문학)
신청기간 2021.6.10.(목) ~ 마감시
문 의 중구문화재단 | 생활문화팀 02-2
가온도서관 0

장충동 '남북문화살롱'

중구문화재단 생활문화팀과 가온도서관의 협업으로 서울도서관, 남북하나재단의 지원기금을 통해 실향민이 많이 이주하여 살아온 중구에 자리 잡은 다양한 북한음식을 매개로 북한을 같이 이해해보는 인문학 살롱

진행 기간: 2021. 6. 19. (토) ~ 11. 13. (토)
진행 장소: 가온도서관, 온라인-줌(zoom)
참여 인원: 20~60대 중구 거주민 20명

북한을 알아보는 '북한 음식 인문학 프로그램'

프로젝트 실행 과정	
2021. 6. 19.	오늘의 북한을 만나다: 김주성 (탈북작가 / 배우고나누는무지개 이사)
2021. 7. 17.	북한의 문화와 음식을 만들다: 제시킴 (주식회사 제시키친 대표)
2021. 8. 21.	북한의 식문화를 이해하다: 권효진 (독립기획자 / 케이스스터디 PM)
2021. 9. 18.	북한을 그리다: 배현정 (그림작가 / 솜프레스 대표)
2021. 10. 16.	북한을 표현하다: 신지영 (문학작가 / 다원예술집단 '우리, 봄' 대표)

북한을 이해하는 '남북 문화 살롱'

프로젝트 실행 과정	
2021. 7. 3.	머리로 이해하기 I 남북한 문화 차이 보기
2021. 7. 31.	머리로 이해하기 II 북한 식생활 들여다보기
2021. 8. 14.	책으로 이해하기 도서 '북한은 처음이지?'로 만난 북한
2021. 9. 4.	눈으로 이해하기 북한 식재료의 세계
2021. 10. 2.	맛으로 이해하기 북한 음식 맛보고 느끼기
2021. 10. 30.	맛을 기록하기 남북한 '맛'의 기준 만들기
2021. 11. 13.	남북한의 맛 드러내기 남북한 식문화 컬렉션 기획하기

좋았던 점

-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이 고루 분포
- 중구 거주민이 주로 참여하여 의미가 있었음
- 중구에 대한 애정과 음식에 대한 높은 관심도
- 인문학강의는 지식과 스킬의 전달이 가능했다면, 살롱은 사이사이 있어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관련 주제에 대한 심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음
- 12회 중 10회 이상 참여한 분들이 약 5명 정도가 있어 성공한 모임이라고 자체 평가

아쉬웠던 점

- 코로나19거리두기로 인해, 맛보기라는 초기 설정 콘셉트를 수행하기 어려웠고 그로 인해 초기 신청 동기와 달리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참여자들의 만족도, 출석율에 영향을 준것으로 보임



부록 01. 정량적 결과 보고

황학동 '황학LOOKBOOK&뱅크시'

우리 동네에서 찾은 추천 의상부터 굿즈 제작까지 다양한 컨텐츠와 골목사진을 담은 황학잡지 '황학LOOKBOOK' 제작 및 도시, 예술가, 낙서라는 큰 주제 안에서 주민들이 동네를 전시장 삼아 예술가의 시선으로 동네를 탐방하며 굿즈를 제작하는 생활문화 프로젝트

진행 기간: 2021. 7. 27. (화) ~ 11. 7. (일)
진행 장소: 중앙시장, 황학동, 을지로동, 더 아트오브 뱅크시 전시장 등
참여 인원: 20~50대 중구 거주민 14명

황학룩북 살롱

프로젝트 실행 과정	
2021. 7. 27.	황학룩북 살롱 오리엔테이션
2021. 8. 3.	레퍼런스 공유를 통한 컨텐츠 방향 정리 및 구성안 논의
2021. 8. 10.	참여자 개별 컨텐츠 계획 및 주제 선정
2021. 8. 24.	참여자 미션 결과 공유 및 개별 컨텐츠 논의
2021. 8. 31.	참여자 활동 공유 및 전체 목차, 레이아웃 논의
2021. 9. 7.	참여자 활동 공유, 개별 컨텐츠 시안 제작 및 소개
2021. 9. 14.	참여자 개별 컨텐츠 제작 과정 및 비대면 활동 계획 공유
2021. 9. 28.	소그룹(2~3인) 촬영 활동 및 개별 컨텐츠 디자인 제작 및 편집 내용 공유
2021. 10. 5.	개별 컨텐츠 1차 취합 및 제작 일정, 내용 공유
2021. 10. 12.	개별 컨텐츠 레이아웃 정리, 활동 마무리

황학 뱅크시

프로젝트 실행 과정	
2021. 9. 26.	더 아트 오브 뱅크시 전시 관람
2021. 10. 3.	더 아트 오브 황학 뱅크시 동네 낙서 찾기 미션 및 주소 추출
2021. 10. 7.	황학동 활동 작가와 함께 스텐실 체험 및 디자인 소스 만들기
2021. 10. 17.	나만의 황학동 낙서와 주소를 활용한 굿즈 디자인
2021. 11. 7.	완성된 굿즈 착용 및 촬영

좋았던 점

-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알게 되고 정보들을 공유함
- 코로나19로 제한된 오프라인 모임을 조별로 추진함
- 살롱을 계기로 지역에서 활동하던 작가와 식당&카페 사장님들을 섭외하여 교류할 수 있었음
-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고, 개성을 담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었음

아쉬웠던 점

- 공동기획 부분에서 모임원들의 참여도가 저조함.
- 화보를 완성하는데 예산적 한계
- 황학동 거주자가 없어서 주민의 시선&이야기를 담기에는 부족했음
- 거리두기가 격상되었을 때, 줌(zoom)과 E-mail로만 소통하다보니 구체적인 아이디어 소통과 개발이 어려웠음


기호네
인란
곱창
구이곱창
야채곱창
신당창작아케이드
신당지하쇼핑센터

신당동 '신당 음음음'

신당동 동네탐방을 희망하는 주민의 수요에서 시작하여 각자의 시선과 감정을 음악으로 수집하고 음원을 만드는 경험을 함으로써 생활문화의 저변을 확장하는 음악 살롱

진행 기간: 2021. 10. 5. (화) ~ 11. 2. (화)
진행 장소: 이로움센터, 신당동, 신당5동, 흥인동, 황학동 동네 일대
참여 인원: 10~50대 중구 거주민 7명

프로젝트 실행 과정	
2021. 10. 5.	신당 음음음 소개 및 살롱 일정 안내, 참여자 소개 — 무엇을 만들고 어떤 감정을 담아낼 것인가를 공유 — 동네에서 직접 녹음할 수 있는 소리들을 입으로 표현해보는 활동
2021. 10. 12.	프로그램 운영 방안 및 설정 논의 — 숙제로 녹음했던 소리들을 공유하고 피드백 하며 현장에서 재녹음 — 소재에 따른, 강약 조절에 따른 소리의 변화를 느끼고 표현해보기
2021. 10. 19.	우리 동네 모습과 소리#1(소리 구성 설정) — 신당동, 흥인동, 황학동의 동네를 탐방하고 소리를 녹음해보는 시간 — 사용하려는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공유 및 소리 배치로 리듬 체험
2021. 10. 26.	우리 동네 모습과 소리#2(곡 구성 설정) — 에이블톤 라이브11 이라는 프로그램 사용법 공유와 실습 — 프로그램 특징과 내장악기과 녹음소리 비교해보기 — 만들어봤던 리듬을 바탕으로 간단한 음악 만들어보기
2021. 11. 2.	음원 완성 및 숨겨진 이야기 나누기 — 상상해보고 이야기 했던 음악을 만들어보고 함께 공유해보기 — 기 녹음된 샘플과 동네 소리를 이용해 곡 완성해보기 — 5개의 곡 완성과 함께 어떤 소리를 어떻게 녹음하고 싶었는지 이야기해보기

좋았던 점

- 우리 동네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소리가 많음.
- 나도 예술가가 될 수 있고, 나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음
- 가족이 하나가 되어 음악 만드는 활동이 재밌고 새로웠음
- 음악 컨텐츠로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음

아쉬웠던 점

- 짧은 기간과 이해도로 완성도가 낮음
- 곡 구성에 있어 즉각적인 피드백이 부족함
- 참여인원이 달라서 참여자간 소통이 힘들었음



부록 01. 정량적 결과 보고

신당동 '야옹츄르사파리'

고양이를 반려하거나 고양이에 대해 관심을 가진 주민들로 구성되어 이 도시를 함께 살아가는 동네고양이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고민하고자 모인 제안형 살롱

진행 기간: 2021. 10. 4. (월) ~ 11. 28. (일)
진행 장소: 온라인-줌(zoom), 신당동도시재생센터, 신당동작은도서관, 신당 공간타이프
참여 인원: 20~40대 중구 거주민 7명

프로젝트 실행 과정

2021. 10. 4.	나의 고양이 — 고양이에 대한 모든 지식, 경험, 생각 (비대면)
2021. 10. 11.	도시의 고양이 —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궁금한 길고양이 모든 것 (비대면)
2021. 10. 18.	도전 야옹츄르사파리 기본편 — 반려동물, 길고양이, 캣맘에 대한 생각 (대면, 도시재생센터)
2021. 10. 25.	도전 야옹츄르사파리 심화편 — '동네고양이', 어떻게 잘 알려줄까 (대면, 신당동작은도서관)
2021. 11. 1.	도전 야옹츄르사파리 실전편 — '동네고양이'에게 필요한 것 (대면, 신당동작은도서관)
2021. 11. 28.	동네고양이 급식소와 겨울집 분양 (대면, 신당동 공간 타이프)

좋았던 점

- 고양이를 실제로 반려하거나 길고양이 돌봄경력을 가진 참여자들로 구성
- 자기 경험과 궁금증에 대해서 솔직히 이야기를 꺼내고 서로 보완이 되는 답변을 함
- 생각해오면 좋을 거리를 전 시간에 말하면 다음 시간에 해당 내용을 준비하는 태도
- 중구신당동작은도서관의 가치 재발견
- 모든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 중구문화재단씨앗프로젝트 '봉지뜯냥'으로 이어져 실질적으로 동네고양이 인식개선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연결점을 찾음

아쉬웠던 점

- 참여자들의 적극성이 높은 반면, 활동을 위해서 낮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음
- 중구캣맘커뮤니티와 소통하기를 희망했으나 다소 폐쇄적이라 접점을 가지기 어려웠음
- 동네고양이 돌봄 차원에서 접근하고 싶었으나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캠페인으로만 추진한 점이 아쉬움



부록 01. 정량적 결과 보고

신당5동 '중구의 재발견'

새로운 시선을 갖고 둘러보면 보이는 신당동의 풍경을 관찰하고 각자의 각자의 시선을 사진, 글 등을 통해 표현하며 동네를 이해하는 인문학 강의 및 생활문화살롱

진행 기간: 2021. 6. 9. (수) ~ 11. 29. (월)
진행 장소: 신당 생활문화예술터, 신당누리도서관, 신당동 일대
참여 인원: 20~50대 중구 거주민 10명

프로젝트 실행 과정

2021. 6. 9. / 2021. 6. 16.	중구의 재발견 1-2회차 — 한양도성 길과 광희문, 신당동 역사이야기
2021. 6. 19. / 2021. 6. 26.	중구의 재발견 3-4회차 — (현장탐방) 광희문 일대, 마포만보 탐방
2021. 7. 14. / 2021. 7. 28.	중구의 재발견 5-6회차 — 아카이빙의 의미와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역사 강의 — 지역문화와 공동체 기록 관리의 의미와 사례 강의
2021. 8. 4. / 2021. 8. 18.	중구의 재발견 7-8회차 — 지역과 공동체 아카이빙 방법론(사진촬영, 구술인터뷰 등) 강의 — 우리동네 사진기록 과제 공유 및 발표 강의
2021. 8. 28. / 2021. 9. 4.	중구의 재발견 9-10회차 — 중구의 재발견 책자 제작살롱 오리엔테이션, 제작 방향 논의 — 기획의도, 제작 방향 설정을 위한 참여자 간 논의
2021. 9. 11. / 2021. 9. 25.	중구의 재발견 11-12회차 — 책자 제작을 위한 레퍼런스 탐색 및 썸네일 작업 공유, 의견 나누기 — 목차 구성 및 더미북 피드백, 책자 구성 소재 논의, 개별 원고 및 레이아웃 피드백
2021. 10. 2. / 2021. 10. 16.	중구의 재발견 13-14회차 — 참여자별 시안 공유 및 수정사항 논의 — 표지 및 내지 작업, 결과물 프린트 확인 및 수정사항 체크, 인쇄용·화면용 파일 만들기
2021. 10. 23. / 2021. 11. 29.	중구의 재발견 후속 활동 — 중구의 재발견 인디고 샘플북 공유 및 피드백 — 책 인쇄사양 확인 및 오탈자 확인, 배포형태 및 방법 논의 — 중구의 재발견: 기억으로 기록하다 출간 모임 — 출간후기 및 인상적인 구절 낭독 공유

좋았던 점

— 단순 강의 형태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직접 탐방하면서 지역을 들여다보고 출판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음
— 익숙한 골목과 동네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 신당누리도서관과 동네 서점 간의 협력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제작됨

아쉬웠던 점

— 기존 강의 중심의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인문학 강의와 탐방에만 참여하고자 하는 참여자가 다소 있었음



부록 01. 정량적 결과 보고

장충동 '커피로드'

커피의 시작인 중구에서 과거와 현재의 커피 역사와 문화를 인문학적 관점으로 익혀보고 지역에 깃든 커피의 역사, 문화, 건축물 등을 통해 지역의 변화와 사회현상을 커피를 소재로 소통하는 프로그램

진행 기간: 2021. 6. 24. (목) ~ 8. 12. (목)
진행 장소: 가온도서관, 온라인-줌(zoom)
참여 인원: 20~50대 중구 거주민 3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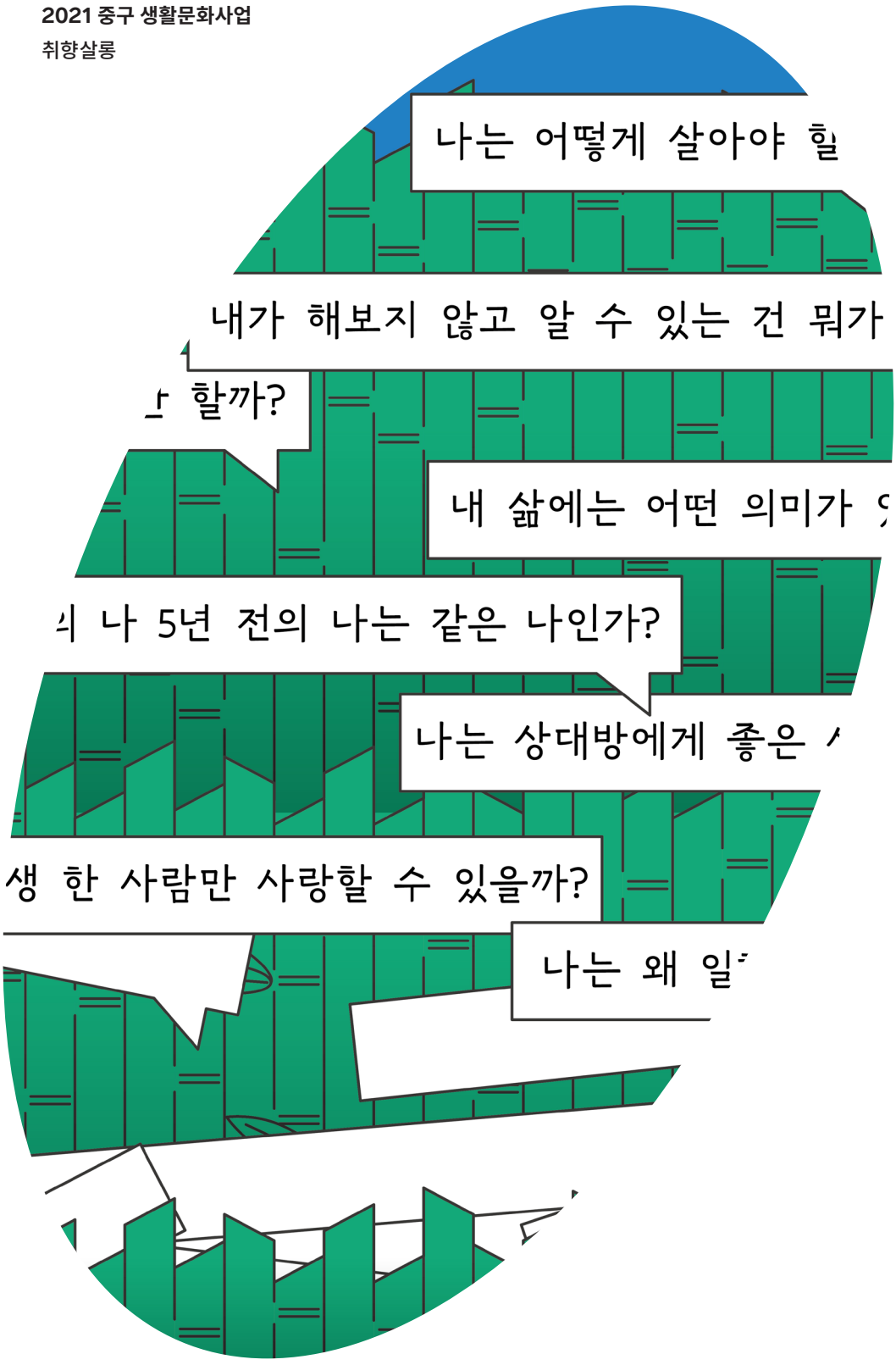
프로젝트 실행 과정	
2021. 6. 24.	커피, 역사를 걷다: 나라별 커피의 역사와 발전 — 온라인 미션 "하루를 커피와 함께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습"
2021. 7. 1.	커피, 문화를 만나다: 영화, 그림, 광고 속의 커피 — 온라인 미션 "중구 지역 주민 추천 우리동네 카페"
2021. 7. 8.	중구, 커피의 출발: 지역 내 역사 이야기 — 온라인 미션 "커피와 함께 듣기 좋은 음악 추천"
2021. 7. 10.	고종을 따라 걷다: 중구 내 커피의 역사가 담긴 공간 탐방 I — 온라인 미션 "이것과 함께 먹으면 커피의 맛이 두배! 커피친구 레시피"
2021. 7. 15.	커피로드 I : 나만의 인생 커피를 위한 지역 연계 토론 — 온라인 미션 "커피와 함께 보기 좋은 영화 추천"
2021. 7. 29.	커피는 과학이다: 커피의 기술과 도구, 소재 — 온라인 미션 "내가 커피를 즐기는 방법 나만의 커피 레시피"
2021. 7. 31.	커피의 도구를 들여다보다: 커피 그라인더의 변화와 발전 — 온라인 미션 "내가 커피에 관심 갖게 된 이유"
2021. 8. 5.	커피의 산업을 바라보다: 커피의 발전과 미래 방향 — 온라인 미션 "커피와 관련된 가보고 싶은 장소 공유"
2021. 8. 7.	커피를 느끼다: 중구 내 커피의 역사가 담긴 공간 탐방 II — 온라인 미션 "나에게 커피란 000이다"
2021. 8. 12.	커피로드 II : 나만의 인생 커피를 위해 지역 연계 아카이빙

좋았던 점

- '커피'라는 관심사를 바탕으로 중구의 역사, 인문학적 관점으로 프로그램과 살롱을 진행하여 참여자 만족도가 높음
- 네이버 밴드(BAND)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연계 활동(온라인 미션)으로 참여와 관심도를 높임

아쉬웠던 점

- 코로나로 인해 탐방이나 후속 모임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점이 아쉬움
- 평일 오전에 진행하여 다른 살롱에 비해 고연령대의 참여자가 많았고, 후속 활동보다는 강의에만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았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내가 해보지 않고 알 수 있는 건 뭐가
ㅏ 할까?
내 삶에는 어떤 의미가
ㅢ 나 5년 전의 나는 같은 나인가?
나는 상대방에게 좋은
생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일

중구대숲

중구에 사는 2030 청년들이 스스로의 고민을 문장으로 만드는 활동을 함으로써 혼자는 마주하기 힘든 문제를 함께 직면하고 인문학적으로 성찰해보는 청년고민 살롱

진행 기간: 2021. 10. 12. (목) ~ 11. 9. (목)
진행 장소: 온라인-줌(zoom)
참여 인원: 20~30대 중구 거주민 20명

프로젝트 실행 과정	
2021. 10. 12.	정체성 — 나는 누구인가? —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 내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 10년 전의 나 5년 전의 나는 같은 나인가?
2021. 10. 19.	우울 — 원래 인간은 우울한 동물 인가? — 스트레스 — 나는 행복해야만 할까?
2021. 10. 26.	관계 — 바짓가랑이 붙잡아봐야 갈 사람은 간다 — 나는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인가?
2021. 11. 2.	결혼 — 비혼주의자 선언 — 나는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을까?
2021. 11. 9.	일과 돈 — 월 600 배민라이더스 왜 안 해? — 나는 왜 일하는 게 힘들까?

좋았던 점

- 차분한 콘텐츠로 대화만 하면 된다는 점에서 참가자 부담이 적었음
- 줌(zoom)으로 진행하는 데에 특화된 콘텐츠라 언제 어디서든 들어갈 수 있어 부담감이 덜했음
- 평소 자주하는 고민을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
- 자신의 고민을 말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게 되는 시간의 소중함

아쉬웠던 점

- 차분한 콘텐츠라는 것은 쉽게 지루할 수 있다는 것. 조금은 지루함을 덜 수 있는 활동
- 대면일 때와 비대면일 때를 구분지어서 어떤 활동이 필요할지 고민이 필요
- 참가자가 고민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라고 느끼게 하는 장치가 아쉬웠음
- 참가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에 대한 조율이 더 필요해 보임


중구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이곳은 잔소리 사망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잔소리 금지구역
잔소리 대피소
2021. 9. 20. (월) 00:00 ~ 9. 22. (수) 24:00 <72시간>
피크타임
20일 (월) 오후 7시: 줌에서 마피아 게임
21일 (화)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차례 지내기
22일 (수) 오후 7시: 잔소리 대피소
(추석 연휴 3일 간 상시 오픈)
참여대상
추석에 잔소리를 피하고 싶은 사람 아무
참여방법
기간 중 하단 링크 및 QR코드 스캔
오픈기간: 9. 20. (월) ~ 9. 22. (수)
참여링크:

72시간 잔소리 대피소

명절에 모인 가족들의 잔소리를 피하고 싶거나 명절을 혼자 보내야 하는 중구의 2030 세대를 위한 추석 기간 한정 신개념 72시간 생중계 실시간 온라인 대피소 프로젝트

진행 기간: 2021. 9. 20. (월) ~ 9. 22. (수)
진행 장소: 온라인-줌(zoom)
참여 인원: 20~30대 중구 거주민 23명

프로젝트 실행 과정

2021. 9. 8. ~ 9. 18.	잔소리 대피소 기획 회의 — 줌(zoom) 플랫폼 기능 테스트 및 리허설,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홍보 등	
2021. 9. 20. ~ 9. 22.	추석 음식 먹방	— 추석음식 레시피 공유 — 각자 저녁 가져와서 온라인상으로 함께 먹기 — 비건, 키토, 할랄, 다이어트와 식단 등 식문화 이야기
	잔소리 대피소	— 살다 살다 이런 잔소리는 처음 듣는다 — 나만의 잔소리 방어법
	밸런스 게임	— '팔만대장경 다 읽기 vs 대장내시경 팔만 번 하기'와 같은 재치 있으면서도 집중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주제로 토론을 나누는 시간
	마피아 게임	— 6인 이상 동시 참여시 마피아 게임 진행
	라이어 게임	— 제시어를 모르거나 혼자 다르게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게임 — 마피아 게임 분위기 과열 시 쉬어가는 게임으로 진행
	캐치마인드	— 줌의 화면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주어진 제시어 혹은 표현하고 싶은 것을 그리고 어떤 그림인지 정답을 맞히는 게임
	틀린 그림 찾기	— 화면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제시된 틀린 그림 찾기 진행 — 2:2, 3:3 등 팀을 나누어 진행하여 친목 도모

좋았던 점

- 언제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만나는 만큼 코로나 걱정 없이 여럿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음
- 줌(zoom)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적극 활용하여 좀 더 몰입감 있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고 활용 및 확장 가능성을 알게 되었음
- 생산적이거나 정보성을 얻는 유익한 콘텐츠가 아닌 단순한 놀이와 이야기를 통해 친밀감을 얻기가 훨씬 수월했음

아쉬웠던 점

- 온라인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접속이 쉬운 만큼 이탈도 쉬워서 정해진 시간에 많은 인원을 모이게 하거나, 지속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어려웠음
- 다양한 사람들이 명확한 주제 없이 모이는 온라인에서 진행하다보니 돌발상황에 대해 대응할 거리를 마련해야 할 필요를 느꼈음
- 방명록을 통해 다음에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제안 받았으나 바로 적용하지 못해 참여자들의 아쉬움이 예상되었음

장충동에서
크리에이터
Jangchung Creators 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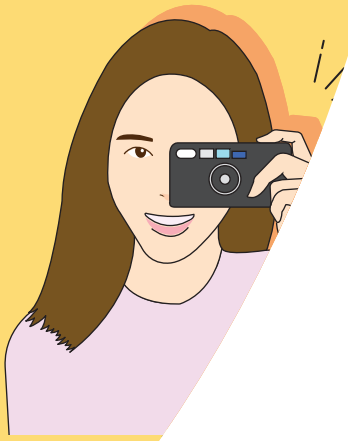
+

장충동 동네친구들과 함께
동네 크리에이터가 되어 보장!



과자봉지로 필통/파우치 만들기

일시 10. 1 (금) pm 19:00



장충동 명소 사진작가 되기 & 굿즈 만들기

※ 휴대폰 카메라도 참여 가능해요!

일시 10. 9 (토) am 10:30 촬영 배우고 야외
10. 11 (월) pm 19:00 사진 편집 &

서울중구

장충동 크리에이터 되기

장충동네친구들이 제안한 번개살롱으로 사진출사, 생활소품 만들기 등을 통해 다른 동네 친구들과 취향과 관심사를 나누는 살롱

진행 기간: 2021. 10. 1. (금) ~ 10. 11. (월)
진행 장소: 장충동작은도서관, 다눔카페, 장충동 작은마을, 장충단공원
참여 인원: 20~40대 중구 거주민 18명

프로젝트 실행 과정

2021. 10. 1.	과자봉지로 필통, 파우치 만들기 — 번개모임 진행 후 필통, 파우치 완성 사진 공유
2021. 10. 9. ~ 10. 11.	장충동 명소 사진작가 되기, 굿즈 만들기 (1) 이론 — 촬영의 기본과 사진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알아보고 DSLR의 특징과 스마트폰 카메라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 — <기억의 보존과 전달> '일상적으로' 혹은 '일상의 사진'을 찍는다는 것을 고찰. 삶의 흐름에 따라서 멈추지 않고 변해가는 이 순간과 공간을 프레임 안에 묶어두는 방법을 가지고 사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소통하기 (2) 출사 — 기본적으로 자유로이 찍는 것을 바탕으로 하되, 몇 가지 테마를 참고하여 촬영 — <동네의 이야기> 동네의 특징을 생각해보며 사라질지 모를 요소들을 찾아 찍어보기 — <자연의 이야기> 이곳 저곳의 인상적인 식물을 주인공으로 여러 시리즈를 찍어보기 — <나와 당신> 셀프카메라 포함, 다른 사람이 찍어주기도 하는 '기념사진'을 모아보기 (3) 최종 결과물 — <입어보는 풍경> 사진으로 티셔츠를 제작하여 "입을 수 있는 전시회"를 완성하기 — 장충동 작은마을 및 장충단공원 사진 촬영 실습, 사진 결과물 공유 — 사진으로 커스터마이징 티셔츠 만들기

좋았던 점

1회차
- 과자봉지로 유용한 생활용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새로웠음
- 필통을 만들며 손바느질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 소비에 익숙한 시대에 버리려던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시각을 배웠음

2회차
- 동네친구에 참여하는 작가님이 재능을 공유해주셔서 좋았음
- 평소 사회 이슈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사진을 찍을 때도 이슈를 찾아내려는 시각으로 찍었던 것 같음
- 장충단공원의 계절의 변화를 담아보며 늘 가던 장소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음

아쉬웠던 점

1회차
- 손바느질이 쉽지 않음을 느끼며 2시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음
- 2시간 안에 만들지 못해 집에서 마무리 작업을 해야 했던 점
- 손재주가 없어 예쁜 모양으로 만들기가 어려웠음

2회차
- 오래 입을 수 있는 퀄리티 좋은 티셔츠로 커스터마이징하고 싶었는데 예산 제한으로 어려웠던 점이 아쉽다.
- 촬영한 사진으로 대화를 나누는 2번째 시간에 3명이 빠져 아쉬웠음

2021 중구 생활문화사업

황학동 주방·가구거리 연계 메이커톤



부록 01. 정량적 결과 보고

‘WHY NEW?’ 프로젝트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는 황학동 주방가구거리 상인들에게 활력을 북돋아줌과 동시에 환경에 관심 있는 예술가가 지역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메이커 문화에 기반하여 아트상품으로 제작하는 프로젝트

진행 기간: 2021. 10. 29. (금) ~ 2022. 1. 30. (일)
진행 장소: 황학동 주방·가구거리, 카페 원써드, 뜬구름 연구소
참여 인원: 20~40대 중구 거주 및 활동 예술가 8명, 중구 내 상가 12곳, 관람 210명

프로젝트 실행 과정

2021. 9. 1. ~ 9. 30.	기획 및 회의 진행. 박선영 PM, 정미정 (디자이너), 스튜디오 수집(영상팀)
2021. 10. 7. ~ 10. 24.	프로젝트 참여 아티스트 공개모집
2021. 10. 29.	사전워크숍 진행 (아이디어 공유 및 프로젝트 소개), 아티스트 8명 참석
2021. 11. 1. ~ 11. 17.	황학동 주방가구거리 시장 조사 및 상가 매칭, 아이디어 개발 및 아트상품 제작 등 영상 촬영 진행
2021. 11. 18. ~ 11. 19.	아티스트 인터뷰 영상 및 최종 상품 사진 촬영
2021. 11. 23. ~ 11. 30.	전시 <무한한, 그 너머로> 운영, 총 210명 참여
2021. 12. 17.	아트굿즈 펀딩 작가 워크숍
2021. 12. 20. ~ 2022. 1. 30.	펀딩 진행

좋았던 점

- 환경과 세컨핸드 제품을 바탕으로 트렌드에 맞춘 프로젝트 방향성의 흥미
- 지역거점(원써드)와 협업하여 오픈된 공간이 있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
- 예술가와 장인들의 협업을 통한 지역 내 새로운 가치와 영감이 되는 소재 발견
- 리사이클링(아티스트의 작업)을 통한 중고제품의 가능성을 제안
- 담당자님이 창작에 대한 존중과 빠른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어려움이 없었음
-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이 정보 공유 등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음

아쉬웠던 점

- 리사이클링 제품의 특징적인 부분을 상가와 협업하기에 이해도가 부족했음
- 10~11월 전시 등 행사가 많은 시즌으로 아티스트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음
- 프로젝트 전체 기간이 짧다보니 상품 테스트 기간 및 쇼케이스 추진 등 시간이 촉박
- 펀딩 시도가 처음인 아티스트가 많아, 가격 설정 및 전문 지식 등 자문을 요청할 곳이 없어서 아쉬웠음
- 미팅 주기는 적당했으나, 오히려 주방가구거리 상인분들과 네트워킹 테이블처럼 자주 모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할 듯



부록 01. 정량적 결과 보고

다산 커뮤니티 시네마 '다산 시네마'

영화를 보면서 동네의 이야기를 나누는 다산동 영화모임 친구들과 함께 만드는 커뮤니티 시네마

진행 기간: 2021. 9. 22. (수) ~ 9. 25. (토)
진행 장소: 다산성곽도서관, 20세기소년, 온라인-줌(zoom), 왓챠플레이 등
참여 인원: 영화를 좋아하고 '가족'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민 152명

프로젝트 준비 과정	
2021. 5. ~ 6.	중구 동네친구 다산동 영화모임 신설 — 영화를 매개로 소통하기를 원하는 동네친구들의 의견에 따라 '다산동 영화 모임'개설
2021. 7. ~ 8.	다산동 영화모임 '우리 언니 전지현' 활동 — 영화감상·영화 토론 진행 — 주민들과 함께 보면 좋은 영화 주제 선정 — 영화를 매개로 지역과 동네에 대한 공론장 운영
2021. 9.	우리동네 커뮤니티시네마 '다산 시네마' 기획 — 중구 내 '영화'와 관련 된 동네 친구들과 함께 — '다산 시네마' 기획 및 추진 — 9월 주제: 가족과 관계

'다산 시네마' 프로그램	
2021. 9. 22. 14:00~18:00	20세기소년과 영화로 놀자 (영화: 동경이야기) — 다산동 영화모임과 20세기 소년이 함께 선정한 동경이야기 관람 후 최광희 평론가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 진행 — 협력: 장충동 20세기소년
2021. 9. 23. 20:00~22:00	핫챠파티 (영화: 스듀어트 리틀) — 영화OTT 함께 보기 서비스 '왓챠파티'로 영화 함께 보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온라인 영화 상영회
2021. 9. 24.20:00~22:00	핑퐁무비살롱 (영화: 스티브 지소와의 해저생활) — 영화 속 다양한 '관계'와 관계 속 현대인들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온라인 영화 토론 — 협력: 핑퐁무비클럽
2021. 9. 25. 19:00~22:00	(연계 프로그램) 다산성곽도서관×동네친구 놀케아 — 신당5동 모임(동네 자원을 활용한 놀이감 만들기)과 다산동 주민이 함께 만드는 도서관 놀이터 "놀케아" — 협력: 생활문화 모임 로컬크래프트, 우드클럽
	(연계 프로그램) 다산성곽도서관 책의 맛 — "가족과 관계" 와 관련된 도서 랜덤 대출 및 우리 동네 커피 즐기기
	다시마 놀이터 — 영화 '마틸다'의 상상 속 놀이터를 만들어보고 즐기는 시네마 놀이터
	영화 읽는 밤 (영화: 마틸다) — 다산동 영화모임에서 선정한 9월의 영화 '마틸다' 관람 및 관객과의 대화



부록 01. 정량적 결과 보고

생활문화마켓 '신당놀놀'

신당동의 문화자원을 활용, 만끽하는 생활문화모임에 참여하는 동네친구들이 함께 만드는 놀이, 체험, 수공예 생활문화 마켓

진행 기간: 2021. 10. 25. (월) ~ 10. 30. (토)
진행 장소: 신당 생활문화예술터 일산, 다산어린이공원 일대
참여 인원: 신당5동·동화동 주민 및 활동가 등 756명

프로젝트 준비 과정	
2021. 5. ~ 6.	중구 동네친구 신당,신당5,동화동 모임 신설 — 봉제, 수공예, 메이커, 환경 등에 관심있는 2050세대 생활문화 모임 개설 — 동네친구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자원 탐방 진행
2021. 7. ~ 8.	수공예 생활문화모임 활동 — 동고동락, 내일더그린, 로컬크래프트 등 신당5동, 동화동 주민들 대상으로 한 수공예·메이커·봉제 등 주제 모임 운영 — 비슷한 관심사를 매개로 지역과 동네에 대한 공론장 운영
2021. 9. ~ 10.	생활문화마켓 '신당놀놀-신의한수' 기획 — 신당 생활권의 '수공예'를 주제로 모인 생활문화모임, 동네친구들이 함께 생활문화 마켓 '신당놀놀' 기획·운영

'신당놀놀' 프로그램	
2021. 10. 30.	놀놀투어 — 신당5동 동네친구가 안내하는 신당5동의 의미 있는 공간·장소 탐방 — 협력: 생활문화 모임 동네탐방, 신당5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미디어분과
	아트플리마켓 — 신당5동·동화동의 솜씨를 뽐낸 작품과 생활용품 아트·플리마켓 — 오랜 이야기가 묻어있는 생활용품과 수공예품의 재발견 — 협력: 생활문화 모임 로컬크래프트. 동고동락, 희망이음, 새마을작은문고 등
	놀이마켓 — 버려지는 자재들을 재활용해 내가 살고 싶은 신당동의 모습을 만들어보는 신당 어벤져스 놀이 교육 프로그램 — 협력: 재미롱, 황학동 동네친구들, 우드클럽
2021. 10. 30.	공감마켓 — 신당5동의 가을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일상과 꿈, 공감을 이야기하는 공연과 희곡 함께 읽기 살롱 '가을밤의 낭독' — 협력: 청년창업팀 함께살이
2021. 10. 25. ~ 10. 30.	체험마켓 — 참여자들의 솜씨를 발휘해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 동네주민들의 백학시장 이야기를 받고 사진을 찍어주는 '이야기 마켓' — 협력: 생활문화 모임 내일더그린, 백학사진관, 지역 커뮤니티 공간 3개소 등



부록 01. 정량적 결과 보고

하룻밤 판타지 '백학놀놀'

신당동 동네친구, 시장 상인, 예술가들이 익숙하지만 낮보다 밤이 더 화려한 동네시장 '백학시장'을 재조명하는 전시, 콘서트

진행 기간: 2021. 11. 26. (금) ~ 12. 10. (금)
진행 장소: 백학시장, 신당5동 일대
참여 인원: 백학시장 상인 및 신당5동 주민, 백학시장 방문자 등 884명

프로젝트 준비 과정	
2021. 8. ~ 9.	중구 내 생활권 시장 '백학시장' 탐방 — 백학시장의 일상과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워크숍 진행 — 신당,신당5동 동네자원 탐방
2021. 10. ~ 11.	중구 동네친구 신당동 모임 활동 — 백학시장 일대의 음의 색과 소리를 수집하는 1050세대 생활문화 모임 '신당 음음음' 진행
2021. 11. ~ 12.	하룻밤 판타지 '백학놀놀' 기획 — 백학시장 골목에 어울리는 음악과 조명을 찾아 화려하지만 낯선 백학시장의 골목을 재조명하는 '백학놀놀' 기획·운영

'백학놀놀' 프로그램	
2021. 11. 26. ~ 11. 27.	화이트 판타지아 — 백학시장 인근 사람들에게 낯선 골목길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조명, 음향으로 '백학의 꿈'을 표현한 실외 전시 — 참여: '신당 음음음' 7명
2021. 11. 26. ~ 12. 8.	백학사진전 — 백학시장 상인들의 일상과 꿈의 이야기를 듣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백학사진관'을 운영하여 수집한 사진과 시장 상인들이 찍은 '백학시장의 일상사진'으로 구성한 사진전 — 참여: 금자식당 외 26개 상점상인
2021. 11. 26. ~ 12. 10.	백학콘서트 — 상인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시장 이야기를 담은 '찾아가는 콘서트' — 협력: 백학시장 상가번영회

부록

02. 동네친구 타임라인

3월 29일

2021. 3. 29.
옆동네참견러 1차
– 2020 생활문화활동 공유 및 구-신 활동가 네트워크

4월 22일

2021. 4. 22.
2022 동네친구 대모집 (2021. 4. 22. ~ 5. 14)

4월 28일

2021. 4. 28.
옆동네참견러 2차
– 2021 생활문화활동 방향 공유 및 협력활동 논의

5월 26일

2021. 5. 26.
옆동네참견러 3차
– 2021 생활문화사업구조 공유, 커뮤니티형 생활문화모임 원칙 및 정의 논의

2021. 5. 26.
신당동 동네친구 OT 1차
– 취미공유(공예,전시)

2021. 5. 26.
약수동 동네친구 OT 1차
– 공간탐방2(카페, 맛집)

2021. 5. 26.
장충동 동네친구 OT 1차
– 장충동 공간탐방

2021. 5. 26.
황학동 동네친구 OT 1차
– 동네투어(산책, 걷기모임)

5월 27일

2021. 5. 27.
다산동 동네친구 OT 1차
– 프로젝트(마켓, 전시, 친환경)

5월 28일

2021. 5. 28.
장충동 동네친구 OT 1차
– 동네 프로젝트 기획

2021. 5. 28.
황학동 동네친구 OT 1차
– 취향취미1(패션,영화,음악)

5월 29일

2021. 5. 29.
다산동 동네친구 OT 1차
– 취미공유(요리,영화) / 동네탐방, 산책

2021. 5. 29.
신당5동·동화동 동네친구 OT 1차
– 동네탐방2(골목, 산책)

2021. 5. 29.
장충동 동네친구 OT 1차
– 장충동 대탐험

2021. 5. 29.
중림동 동네친구 OT 1차
– 육아, 산책

6월 1일

2021. 6. 1.
황학동 동네친구 OT 1차
– 취향취미2(글, 사진, 그림)

6월 10일

2021. 6. 10.
다산동 동네친구 OT 2차
– 마켓

2021. 6. 10.
신당5동·동화동 동네친구 OT 2차
– 골목산책, 건강운동

2021. 6. 10.
신당동 동네친구 OT 2차
– 산책

2021. 6. 10.
약수동 동네친구 OT 2차
– 일상공유(산책, 반려동물)

2021. 6. 10.
황학동 동네친구 OT 2차
– 취미·취향 공유

6월 16일

2021. 6. 16.
약수동 동네친구 OT 3차
– 아침밥 같이 먹어보기

2021. 6. 16.
중구의 재발견 2차
– 신당동 역사 이야기

6월 19일

2021. 6. 19.
중구의 재발견 3차
– 광희문 일대 탐방

2021. 6. 19.
북한음식 인문학 프로그램 1차
– 오늘의 북한을 만나다

6월 22일

2021. 6. 22.
약수동 동네친구 OT 3차
– 동친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 함께읽기

6월 23일

2021. 6. 23.
장충동 동네친구 OT 3차
– 장충동 대탐험

6월 25일

2021. 6. 25.
신당동 동네친구 OT 3차
– 동네친구에게 배우는 미싱클래스

2021. 6. 25.
장충동 동네친구 OT 3차
– 친환경

부록 02. 동네친구 타임라인

5월 11일

2021. 5. 11.
다산동 월간수저
– 월간수저 인터뷰: 김맹혜

5월 22일

2021. 5. 22.
약수동 동네친구 OT 1차
– 공간탐방1(카페, 맛집) / 동네투어(반려동물, 지도, 산책)

5월 24일

2021. 5. 24.
신당동 동네친구 OT 1차
– 동네음식탐방 / 골목,역사탐방

2021. 5. 24.
약수동 동네친구 OT 1차
– 공간탐방1(카페, 맛집) / 동네투어(반려동물, 지도, 산책)

5월 25일

2021. 5. 25.
신당5동·동화동 동네친구 OT 1차
– 동네탐방1(카페, 맛집)

2021. 5. 25.
약수동 동네친구 OT 1차
– 운동,마켓

5월 31일

2021. 5. 31.
신당동 동네친구 OT 1차
– 운동,자전거,등산,산책

2021. 5. 31.
청구동 동네친구 OT 1차
– 취미공유(영화, 운동)

6월 2일

2021. 6. 2.
청구동 동네친구 OT 1차
– 우리동네 탐구

6월 7일

2021. 6. 7.
다산동 월간수저
– 월간수저 인터뷰: 스네일

6월 8일

2021. 6. 8.
신당5동·동화동 동네친구 OT 2차
– 취미공유(독서, 미싱)

6월 9일

2021. 6. 9.
신당동 동네친구 OT 2차
– 맛집탐방

2021. 6. 9.
약수동 동네친구 OT 2차
– 재능공유(독서,미싱)

2021. 6. 9.
장충동 동네친구 OT 2차
– 중구의 맛탐방

2021. 6. 9.
중구의 재발견 1차
– 한양도성길과 광희문

6월 11일

2021. 6. 11.
다산동 동네친구 OT 2차
– 취미공유

2021. 6. 11.
신당동 동네친구 OT 2차
– 수공예, 메이커

2021. 6. 11.
약수동 동네친구 OT 2차
– 일상공유(지도, 카페, 맛집)

2021. 6. 11.
장충동 동네친구 OT 2차
– 친환경

2021. 6. 11.
중림동 동네친구 OT 2차
– 동네프로젝트 기획

6월 12일

2021. 6. 12.
다산동 동네친구 OT 2차
– 일상공유

2021. 6. 12.
약수동 동네친구 OT 2차
– 재능공유(책, 술, 영화)

2021. 6. 12.
장충동 동네친구 OT 2차
– 동네 프로젝트, 문화만들기

2021. 6. 12.
중림동 동네친구 OT 2차
– 육아, 인테리어

2021. 6. 12.
황학동 동네친구 OT 2차
– 동네친구 마인드맵

6월 18일

2021. 6. 18.
청구동 동네친구 OT 2차
– 다같이돌자 동네한바퀴

2021. 6. 18.
다산동 동네친구 취향공유 모임 1차
– 스네일의 취향: 여름밤을 주제로 각자 좋아하는 음악을 소개하고 함께 듣는 음감회

6월 24일

2021. 6. 24.
다산동 동네친구 OT 3차
– 조금은 가벼운 마켓회의

2021. 6. 24.
신당동 동네친구 OT 3차
– 동네 맛집탐방

2021. 6. 24.
약수동 동네친구 OT 3차
– 업사이클링 모자 만들기

2021. 6. 24.
커피로드 1차
– 커피, 역사를 걷다

6월 26일

2021. 6. 26.
옆동네참견러 4차
– 동네친구의 정의, 커뮤니티형 생활문화모임 활동기준 및 원칙 논의

2021. 6. 26.
다산동 동네친구 OT 3차
– 줌(zoom)으로 함께하는 홈트레이닝

2021. 6. 26.
약수동 동네친구 OT 3차
– 랜선 집사모임

2021. 6. 26.
장충동 동네친구 OT 3차
– 동네마켓 기획모임

2021. 6. 26.
황학동 동네친구 OT 3차
– 황학동 컬러링 프로그램 참여

2021. 6. 26.
중구의 재발견 4차
– 마포만보탐방

6월 28일

2021. 6. 28.
황학동 동네친구 OT 3차
– 중구광장 함께 읽기

6월 29일

2021. 6. 29.
신당5동·동화동 동네친구 OT 3차
– 골목산책, 건강운동

7월 3일

2021. 7. 3.
남북문화살롱 1차
– 남북한 문화 차이보기

7월 5일

2021. 7. 5.
신당5동·동화동 동네친구 OT 3차
– 백학시장 탐방

7월 8일

2021. 7. 8.
커피로드 3차
– 중구, 커피의 출발

7월 17일

2021. 7. 17.
북한음식 인문학 프로그램 2차
– 북한의 문화와 음식을 만들다

7월 21일

2021. 7. 21.
옆동네참견러 5차
– 동네친구 오리엔테이션 기반 아이디어 디벨롭 워크숍

7월 26일

2021. 7. 26.
황학음감회 1차
– 히피히피의 영화음악 컴필 앨범 추천

7월 31일

2021. 7. 31.
남북문화살롱 2차
– 북한 식생활 들여다보기

2021. 7. 31.
커피로드 7차
– 커피의 도구를 들여다보다

8월 2일

2021. 8. 2.
황학음감회 2차
– 누군가와 함께 듣고 싶은 음악 등 참여자의 추천음악과 사연 소개

8월 5일

2021. 8. 5.
월간수저+ 1차
– OT: 다산동 생활문화 활동 공유 및 활동 아이디어 공유

2021. 8. 5.
커피로드 8차
– 커피의 산업을 바라보다

8월 6일

2021. 8. 6.
다산동 동네친구 취향공유 모임 3차
– 펀트의 취향: 일상 브이로그 촬영 및 공유

8월 7일

2021. 8. 7.
커피로드 9차
– 커피를 느끼다

8월 10일

2021. 8. 10.
황학룩북 2차
– 참여자 개별 컨텐츠 계획 및 주제 선정

8월 11일

2021. 8. 11.
한여름밤의 낭독 2차
– 연극놀이1 (가방을 든 자화상)

8월 18일

2021. 8. 18.
중구의 재발견 8차
– 우리동네 사진기록 과제 공유 및 발표

2021. 8. 18.
한여름밤의 낭독 3차
– 연극놀이2 (우연한 소개)

8월 19일

2021. 8. 19.
월간수저+ 2차
– MBTI 성격 유형 검사 관련 이야기 및 일정 공유

부록 02. 동네친구 타임라인

6월 30일

2021. 6. 30.
신당동 동네친구 OT 3차
– 운동, 동네산책

7월 1일

2021. 7. 1.
커피로드 2차
– 커피, 문화를 만나다

7월 2일

2021. 7. 2.
약수동 동네친구 OT 3차
– 랜선 취향 자랑대회

2021. 7. 2.
중림동 동네친구 OT 3차
– 어린이 경제교육 함께만들기

2021. 7. 2.
다산동 동네친구 취향공유 모임 2차
– 로피의 취향: 다이어리 꾸미기

7월 10일

2021. 7. 10.
커피로드 4차
– 고종을 따라 걷다

7월 14일

2021. 7. 14.
중구의 재발견 5차
– 아카이빙의 의미와 우리나라 기록 관리의 역사

7월 15일

2021. 7. 15.
커피로드 5차
– 후속모임 - 중구에서 커피의 '길' 만들기

7월 27일

2021. 7. 27.
황학룩북 1차
– OT

7월 28일

2021. 7. 28.
중구의 재발견 6차
– 지역문화와 공동체 기록관리의 의미와 사례

7월 29일

2021. 7. 29.
다산동 월간수저
– 월간수저 인터뷰: AA세라믹스튜디오

2021. 7. 29.
커피로드 6차
– 커피는 과학이다

8월 3일

2021. 8. 3.
다산동 커뮤니티시네마 1차
– 영화상영회 주제, 영화 선정, 장소 논의

2021. 8. 3.
황학룩북 2차
– 레퍼런스 공유를 통한 컨텐츠 방향 정리 및 구성안 논의

8월 4일

2021. 8. 4.
중구의 재발견 7차
– 지역과 공동체 아카이빙 방법론

2021. 8. 4.
한여름밤의 낭독 1차
– 아이스브레이팅, 대본 드라이리딩

8월 9일

2021. 8. 9.
황학음감회 3차
– 양의 City Pop 추천

8월 12일

2021. 8. 12.
커피로드 10차
– 후속모임: 중구에서 커피 지도 만들기

2021. 8. 12.
다산동 월간수저
– 월간수저 인터뷰: 신제현 작가

8월 13일

2021. 8. 13.
뜻밖의 꿀잠여행 1차
– 꿀잠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2021. 8. 13.
다산동 커뮤니티시네마 2차
– 왓챠플레이 인디영화 감상

8월 14일

2021. 8. 14.
약수동 동네친구 친환경라이프 1차
– 비건, 동물권, 제로웨이스트와 환경문제

2021. 8. 14.
남북문화살롱 3차
– 도서 '북한은 처음이지?'로 만난 북한

8월 17일

2021. 8. 17.
다산동 월간수저
– 월간수저 인터뷰: 서울별장 이지희 대표

8월 20일

2021. 8. 20.
다산동 커뮤니티시네마 3차
– 가족 주제 독립영화 4편 감상

2021. 8. 20.
장충동 동네친구 청년크리에이터 모임 1차
– 다산동 커뮤니티시네마 연계 영화상영회 기획

2021. 8. 20.
장충동 동네친구 친환경마켓모임 1차
– 집에서 버리긴 아까운데 쓰지않는 물건 선물하기

2021. 8. 20.
뜻밖의 꿀잠여행 2차
– 반복되는 악몽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2021. 8. 20.
중림동 동네친구 중림산책 1차
–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8월 21일

2021. 8. 21.
장충동 동네친구 산책/공간탐방모임 1차
– 장충단공원길 산책

2021. 8. 21.
북한음식 인문학 프로그램 3차
– 북한의 식문화를 이해하다

8월 23일

2021. 8. 23.
다산동 동네친구 일상공유모임 1차
– 동시간에 줌(zoom)에 접속하여 집밥먹고 이야기 나누는 '줌밥'

2021. 8. 23.
장충동 동네친구 청년크리에이터 모임 2차
– 장충동 지역자원 조사

2021. 8. 23.
황학음감회 4차
– 양의 AOR 추천

8월 31일

2021. 8. 31.
신당5동·동화동 동네친구 반려견 산책모임 1차
– 반려견 산책 교정 후기 나누기, 반려견 자랑대회

2021. 8. 31.
신당5동 동네친구 산책모임 1차
– 신당동 일대 탐방

2021. 8. 31.
황학룩북 5차
– 참여자 활동 공유 및 전체 목차, 레이아웃 논의

9월 3일

2021. 9. 3.
다산동 커뮤니티시네마 4차
– 관계와 관련된 영화 소개

2021. 9. 3.
뜻밖의 꿀잠여행 4차
–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

9월 9일

2021. 9. 9.
신당5동·동화동 동네친구 내일더그린 1차
– 친환경재료 비누만들기

9월 10일

2021. 9. 10.
다산동 커뮤니티시네마 5차
– 온라인 상영작 및 오프라인 상영 영화 선정

2021. 9. 10.
신당동 동네친구 수공예모임 1차
– 란님, 써니님 작업실 놀러가기

2021. 9. 10.
장충동 동네친구 친환경마켓모임 2차
– 장충동 플로깅

2021. 9. 10.
약수동 동네친구 산책/공간탐방모임 3차
– 광희동 플로깅

9월 11일

2021. 9. 11.
약수동 동네친구 약수어벤져스 1차
– 약수동 카페 및 맛집 탐방, 매봉산 플로깅

2021. 9. 10.
중구의 재발견 11차
– 후속모임: 책자 제작 레퍼런스 탐색

2021. 9. 10.
중림동 동네친구 중림산책 5차
–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함께 산책

9월 12일

2021. 9. 12.
약수동 동네친구 친환경라이프 3차
– 제로웨이스트 가게 '서울역 알맹상점' 탐방

9월 15일

2021. 9. 15.
장충동 동네친구 청년크리에이터 모임 4차
– 추석 연휴 콜라보 아이디어 회의

9월 16일

2021. 9. 16.
약수동 동네친구 친환경라이프 4차
– 환경 영화 '우리의 지구' 왓치파티로 관람하고 후기 공유

8월 24일

2021. 8. 24.
엮동네참견러 6차
– 동 활동가 및 동네친구 활동 공유 (2권역)

2021. 8. 24.
황학룩북 4차
– 참여자 미션 결과 공유 및 개별 컨텐츠 논의

8월 25일

2021. 8. 25.
한여름밤의 낭독 4차
– 연극놀이3 (핫시팅) & 배역 캐스팅

8월 26일

2021. 8. 26.
엮동네참견러 6차
– 동 활동가 및 동네친구 활동 공유 (1권역)

8월 27일

2021. 8. 27.
뜻밖의 꿀잠여행 3차
– 스트레스는 불면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

8월 28일

2021. 8. 28.
중구의 재발견 9차
– 후속모임: '중구의 재발견' 책자 제작살롱 OT

2021. 8. 28.
중림동 동네친구 중림산책 2차
– 반려견 산책교육

8월 30일

2021. 8. 30.
장충동 동네친구 청년크리에이터 모임 3차
– 장충동에서 하고싶은 활동 논의

2021. 8. 30.
황학음감회 5차
– 히피히피의 번안곡 추천

9월 1일

2021. 9. 1.
한여름밤의 낭독 5차
– 연극놀이4(인물의 행동 찾기) & 낭독회 리허설

9월 4일

2021. 9. 4.
장충동 동네친구 산책/공간탐방모임 2차
– 장충동 역사탐방 코스 따라 걷기

2021. 9. 4.
중구의 재발견 10차
– 후속모임: 기획의도, 제작방향 설정

2021. 9. 4.
남북문화살롱 4차
– 북한 식재료의 세계

9월 6일

2021. 9. 6.
약수동 동네친구 친환경라이프 2차
– 비건 음식을 함께 먹고 제로웨이스트 카페 탐방

2021. 9. 6.
황학음감회 6차
– 선선해진 날씨와 어울리는 양의 City Pop 추천

9월 7일

2021. 9. 7.
다산동 월간수저
– 월간수저 인터뷰: 김강현 작가

2021. 9. 7.
황학룩북 6차
– 참여자 활동 공유, 개별 컨텐츠 시안 제작 및 소개

9월 8일

2021. 9. 8.
한여름밤의 낭독 6차
– 미러링 낭독회

2021. 9. 8.
중림동 동네친구 중림산책 4차
– 서울로 7017 산책

2021. 9. 4.
중림동 동네친구 중림산책 3차
– 애견동반카페 함께가보고 산책코스 공유

9월 13일

2021. 9. 13.
황학음감회 7차
– 히피히피의 밤산책에 좋은 노래 추천

9월 14일

2021. 9. 14.
다산동 커뮤니티시네마 6차
– 마포FM FM주파수 활용 논의

2021. 9. 14.
신당5동·동화동 동네친구 반려견 산책모임 2차
– 신당5동 주변 애견동반카페 방문여부 조사

2021. 9. 14.
황학룩북 7차
– 참여자 개별 컨텐츠 제작 과정 및 비대면 활동 계획 공유

9월 17일

2021. 9. 17.
다산동 커뮤니티시네마 7차
– 왓챠파티 리허설 <스튜어트 리틀>

9월 18일

2021. 9. 18.
장충동 동네친구 산책/
공간탐방모임 4차
– 남산길 따라 걷기

2021. 9. 18.
북한음식 인문학 프로그램 3차
– 북한을 그리다

9월 20일

2021. 9. 20.
72시간 잔소리 대피소 (2021. 9. 20. ~ 9. 22)
– 추석 연휴 잔소리를 피하고 싶은 사람, 집에서 혼자 추석을 보내는 사람 모두 모여 이야기 나누고 게임도 하는 72시간 줌(zoom)모임

9월 22일

2021. 9. 22.
다산동 커뮤니티시네마
'다산시네마'
– 20세기소년과 영화로 놀자 <동경가족>

2021. 9. 22.
장충동 동네친구 청년크리에이터 모임 5차
– 다산시네마 장충동 동네친구 우편함 프로젝트 회의

9월 28일

2021. 9. 28.
황학룩북 8차
– 소그룹 촬영 활동 및 개별 컨텐츠 디자인 편집

9월 29일

2021. 9. 29.
옆동네참견러 7차
– 생활문화 밸런스게임, 나의 삶에서 생활문화 사례 공유 (2권역)

9월 30일

2021. 9. 30.
옆동네참견러 7차
– 생활문화 밸런스게임, 나의 삶에서 생활문화 사례 공유 (1권역)

2021. 9. 30.
차담 1차
– 이세계다실로 오세요 OT

10월 3일

2021. 10. 3.
황학뱅크시 2차
– 전통시장 중심 거리의 낙서 및 주소 채집

10월 5일

2021. 10. 5.
신당음음음 1차
– 소리의 특징, 의성어 등으로 표현해보기

2021. 10. 5.
황학룩북 9차
– 컨텐츠 1차 취합 및 내용 공유

10월 7일

2021. 10. 7.
약수동 동네친구 친환경라이프 5차
– 신당5동 일대 탐방

2021. 10. 7.
차담 2차
– 백차, 청차, 홍차마시며 서로를 알아가기

2021. 10. 7.
황학메이커톤 프로젝트 참여 아티스트 공개 모집 (2021. 10. 7. ~ 10. 24.)

10월 9일

2021. 10. 9.
신당5동·동화동 동네친구 내일더그린 3차
– 한약찌꺼기,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비료 만들기

2021. 10. 9.
신당동 동네친구 수공예모임 2차
– 재봉틀 사용법 및 간단한 실습 진행

2021. 10. 9.
장충동 크리에이터 2차
– 사진 원데이 클래스 및 출사

10월 10일

2021. 10. 10.
황학뱅크시 3차
– 황학동 작가와 함께 스텐실 체험 및 디자인 소스 만들기

10월 12일

2021. 10. 12.
신당5동·동화동 동네친구 반려견 산책모임 2차
– 우리동네 반려견 산책코스 찾기

2021. 10. 12.
중구대숲 1차
– 정체성(나는 누구인가?)

2021. 10. 12.
신당음음음 2차
– 녹음해온 동네의 소리 공유

2021. 10. 12.
황학룩북 10차
– 개별 컨텐츠 레이아웃 정리 및 활동 마무리

10월 18일

2021. 10. 18.
야옹츄르사파리 2차
– 도시의 고양이에 대한 인식 의견 공유

9월 23일

2021. 9. 23.
다산동 커뮤니티시네마
'다산시네마'
– 핫챠파티 <스튜어트 리틀>

9월 24일

2021. 9. 24.
다산동 커뮤니티시네마
'다산시네마'
– 핑퐁무비살롱 <스티브 지소와의 해저 생활>

9월 25일

2021. 9. 25.
다산동 커뮤니티시네마
'다산시네마'
– 다시마놀이터 / 영화 읽는 밤 <마틸다>

2021. 9. 25.
신당5동·동화동 동네친구
내일더그린 2차
– EM활용수 만들기

2021. 9. 25.
약수동 동네친구 약수어벤져스 2차
– 다산성곽길 플로깅, 다산성곽도서관 및 인근 카페 탐방

2021. 9. 25.
중구의 재발견 12차
– 후속모임: 목차구성 및 더미북 만들어보기

2021. 9. 25.
중림동 동네친구 중림산책 6차
– 손기정체육공원 반려견 산책루트 찾아보기

9월 26일

2021. 9. 26.
황학뱅크시 1차
– 더아트오브뱅크시 전시 단체 관람 및 감상평 공유

9월 27일

2021. 9. 27.
황학음감회 8차
– 히피히피의 즐거운 헤어짐을 위한 노래 추천

10월 1일

2021. 10. 1.
다산동 커뮤니티시네마
'다산시네마' 평가회

2021. 10. 1.
신당동 동네친구 산책모임 2차
– 신당5동 일대 탐방

2021. 10. 1.
장충동 크리에이터 1차
– 과자 봉지를 이용한 필통 파우치 만들기

2021. 10. 1.
황학음감회 후속활동
– 황학음감회 플레이리스트 영상 제작

10월 2일

2021. 10. 2.
장충동 동네친구 산책/
공간탐방모임 5차
– 한양도성코스 따라 걷기

2021. 10. 2.
중구의 재발견 13차
– 후속모임: 참여자별 시안 공유 및 수정사항 논의

2021. 10. 2.
남북문화살롱 5차
– 북한 음식 맛보고 느끼기

2021. 10. 2.
중림동 동네친구 중림산책 7차
– 동네 펫프렌들리 카페 찾아보기

10월 11일

2021. 10. 11.
야옹슈르사파리 1차
– 내가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 소개

2021. 10. 11.
장충동 크리에이터 3차
– 입는 전시회 커스터마이징 티셔츠 만들기

10월 14일

2021. 10. 14.
다산동 월간수저
– 월간수저 인터뷰: 해그리드

2021. 10. 14.
차담 3차
– 우롱차 마시며 내 주변에 있는 안전한 행복 찾아보기

10월 16일

2021. 10. 16.
신당동 동네친구 수공예모임 3차
– 동네친구 혜정님과 에코백 만들어보기

2021. 10. 16.
중구의 재발견 14차
– 후속모임: 표지 내지작업, 인쇄용 파일 만들어보기

2021. 10. 16.
북한음식 인문학 프로그램 4차
– 북한을 표현하다

10월 19일

2021. 10. 19.
중구대숲 2차
– 우울(원래 인간은 우울한 동물인가?)

2021. 10. 19.
신당음음음 3차
– 동네 모습과 소리에 따른 구성 설정하고 동네탐방하며 소리 녹음해보기

10월 21일

2021. 10. 21.
약수동 동네친구 친환경라이프 6차
– 분리수거, 채식 관련 추석 썰 풀기

2021. 10. 21.
차담 4차
– 차를 마시며 서로의 취미 공유하기

10월 22일

2021. 10. 10.
다산동 동네친구 취향공유모임 4차
– 스네일의 취향: 인센스 만들기

10월 26일

2021. 10. 26.
다산동 동네친구 일상공유모임 2차
– 다산성곽길 산책

2021. 10. 26.
중구대숲 3차
– 관계(나는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인가?)

2021. 10. 26.
신당음음음 4차
– 음악 편집 프로그램 사용법 공유 및 음악 실습

10월 28일

2021. 10. 28
동네친구 역량강화 CoP 1차 with 임재춘

2021. 10. 28.
차담 5차
– 차를 마시며 가족역할극을 통해 가족의 마음과 내 마음 이해해보기

10월 30일

2021. 10. 30.
생활문화마켓 '신당놀놀': 놀놀투어/아트플리마켓/놀이마켓/체험마켓

2021. 10. 30.
남북문화살롱 6차
– 남북한 '맛'의 기준 만들기

11월 1일

2021. 11. 1.
야옹츄르사파리 4차
– 단계별 접근방안 및 캠페인 문구 설정

2021. 11. 1.
중림동 동네친구 중림산책 8차
– 반려동물 산책 및 1:1 코칭

11월 9일

2021. 11. 9.
중구대숲 5차
– 일과 돈(나는 왜 일하는 게 힘들까?)

11월 13일

2021. 11. 13.
남북문화살롱 7차
– 남북한 식문화 컬렉션 기획하기

11월 16일

2021. 11. 16.
다산동 동네친구 취향공유모임 6차
– 박작가의 취향: 필름사진 찍기-2

11월 18일

2021. 11. 8.
차담 8차
– 백차 마시며 위드코로나를 맞아 갈등없는 비대면 대화법 연구해보기

11월 23일

2021. 11. 23.
황학메이커톤 쇼케이스 전시 <무한한, 그 너머로> (2021. 11. 23. ~ 11. 30.)

11월 29일

2021. 11. 29.
중구의재발견 출판기념회

2021. 11. 29.
중림동 동네친구 중림산책 9차
– 반려동물 산책 및 반려동물 용품 플리마켓 논의

11월 30일

2021. 11. 30.
다산동 동네친구 취향공유모임 7차
– 해그리드의 취향: 치즈케이크 만들기

12월 2일

2021. 12. 2.
동네친구 역량강화 CoP 2차 with 박사

2021. 12. 2.
차담 10차
– 각자의 콤부차를 가져와 나눠 마시고 자기만의 콤부차 브랜딩하기

12월 11일

2021. 12. 11.
약수동 동네친구 약수어벤져스 3차
– 약수동 플로깅

12월 17일

2021. 12. 17.
황학메이커톤 작가 펀딩워크숍

10월 23일

2021. 10. 23.
신당5동·동화동 동네친구 내일더그린 4차
– 중구 내 친환경 가게 탐방

2021. 10. 23.
중구의 재발견 15차
– 후속모임: 중구의 재발견 낭독, 샘플북 공유

10월 24일

2021. 10. 24.
황학뱅크시 4차
– 나만의 황학동 낙서와 주소를 활용한 굿즈 디자인하기

10월 25일

2021. 10. 25.
장충동 동네친구 청년크리에이터 모임 6차
– 씨앗프로젝트 기획

2021. 10. 25.
야옹츄르사파리 3차
– 캣맘에 대한 각자의 생각

10월 29일

2021. 10. 29.
황학메이커톤 프로젝트 사전워크숍 및 아이디어 공유회

11월 2일

2021. 11. 2.
다산동 동네친구 취향공유모임 5차
– 박작가의 취향: 필름사진 찍기-1

2021. 11. 2.
중구대숲 4차
– 결혼(비혼주의자 선언)

2021. 11. 2.
신당음음음 5차
– 음악 완성과 피드백 공유

11월 4일

2021. 11. 4.
차담 6차
– 차를 마시며 사회가 말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서로의 생각 나눠보기

11월 7일

2021. 11. 7.
황학뱅크시 5차
– 완성된 굿즈 착용 및 촬용

11월 8일

2021. 11. 8.
야옹츄르사파리 5차
– 야옹츄르사파리의 용어 정의 사전 만들기 초안

11월 11일

2021. 11. 11.
차담 7차
– 홍차 마시며 내가 바라는 내 모습의 아바타 만들고 메타버스 게더타운에서 놀기

11월 12일

2021. 11. 12.
옆동네참견러 8차 (2021. 11. 12. ~ 11. 30.)
– 2021 생활문화활동 사례공유 및 주체성,공공성,문화성 등 논의

11월 25일

2021. 11. 25.
차담 9차
– 홈메이드 콤부차 만들어보며 발효된 우리의 관계 돌아보기

11월 26일

2021. 11. 26.
하룻밤 판타지 '백학놀놀' 화이트판타지아/백학사진전/백학콘서트 (2021. 11. 26. ~ 12. 10.)

11월 28일

2021. 11. 28.
야옹츄르사파리 6차
– 동네고양이 급식소와 겨울집 분양

12월 7일

2021. 12. 7.
차담 11차
– 각자의 콤부차를 가져와 나눠 마시고 자기만의 콤부차 브랜딩하기

12월 9일

2021. 12. 9.
다산동 동네친구 일상공유모임 3차
– 남산둘레길, 충무로 산책

12월 10일

2021. 12. 10.
동네친구 역량강화 CoP 3차 with 유상진

12월 22일

2021. 12. 22.
동네친구 역량강화 CoP 4차 with 이용재

12월 23일

2021. 12. 23.
동네친구 역량강화 CoP 5차 with 고재열

七夕

중구지음 2

중구생활문화백서
중구지음 2권 '돗'_생활문화 실전편

기획·운영 중구문화재단 생활문화팀
— 문지영, 전수민, 배제현, 양진영, 황예은, 성기현, 길수아, 김성현, 배슬기, 이필원
N개의 서울 PM
— 김동규, 유은솔, 이상훈, 이원경

에디터 권효진, 이아림

디자인 공영그래픽스튜디오

발행처 중구문화재단 생활문화팀
서울시 중구 퇴계로387 충무아트센터
발행인 이준희
발행일 2022년 3월

중구문화재단 홈페이지
www.caci.or.kr

중구 동네친구들 SNS
www.instagram.com/junggufriends

중구 지역생활문화 유튜브
bit.ly/지역생활문화

본 기록집의 무단전재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문화재단

중구생활문화백서

중구지음 2권 '矢'_생활문화 실전편

중구문화재단 www.caci.or.kr

비매품 / 무료
04680
9 791197 920929

ISBN 979-11-979209-2-9
ISBN 979-11-979209-0-5 (세트)